

2020-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20-02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가정 내 돌봄과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엄지연

엄지연 연구모임 Ulabs,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dusl-eum@daum.net

홍은정 연구모임 Ulabs, 도시계획학 박사, 프리랜서
aurorahong.moon@gmail.com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시민 스스로 일상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가정 내 돌봄과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초등생을 둔 가정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엄지연 연구모임 Ulabs,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연구진

홍은정 연구모임 Ulabs, 도시계획학 박사, 프리랜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연구개요	1
1_연구배경 및 목적	1
2_연구방법과 내용	4
02 문헌 검토	6
1_코로나19 상황 변화	6
2_관련 문헌	16
03 심층면담	18
1_심층면담조사 개요 및 분석의 틀 설정	18
2_교육(학습) 관련	22
3_돌봄 관련	32
4_방과 후 교육 관련	43
5_사회적 교류 관련	49
6_가족 일상 및 구성원 부담 관련	54
6_소결	59
04 정책제안	61
1_단기적 대안	61
2_중장기적 대안	73
05 결언	81
참고문헌	83

표 목차

[표 2-1]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적용기간 변화	8
[표 2-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에 관한 지침(2020년 12월 현재)	9
[표 2-3]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정책 변화	9
[표 2-4] 서울시내 초등학교 이용가능 돌봄서비스	14
[표 3-1] 주요 질문 및 토의내용	18
[표 3-2] 개별 면담자의 주요 특성	20
[표 3-3] 코로나19 이전, 면담 대상자 자녀들의 일상	21
[표 3-4] 면담 결과 분석의 틀	21
[표 3-5] 면담 대상자들의 기간별 돌봄 형태 변화 (낮 시간대 9:00~18:00)	33
[표 3-6] 면담 대상자들의 기간별 방과 후 교육 형태 변화	43
[표 3-7]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일상의 변화	54
[표 3-8] 자녀 주 양육자의 어려움	56
[표 4-1] 주택 밀집지역의 학교 운동장 활용방안 예시	64
[표 4-2] 공공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65
[표 4-3] 서울시 아이 돌봄서비스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67
[표 4-4] 학교 급식 활용방안 예시	72
[표 4-5] 서울시내 과밀학급 현황 분석	74
[표 4-6]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학교 현황	75
[표 4-7] 작은 학교의 형태	76

그림 목차

[그림 2-1] 코로나19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	6
[그림 2-2]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누적 사망자 수	7
[그림 2-3]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 추이(누적)	7
[그림 2-4]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초등학생)	13
[그림 4-1]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추진목표	68
[그림 4-2]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69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온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우리나라는 K-방역이라 불릴 만큼 우수한 방역체계의 구축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여 왔으나, 2020년 12월 11일 기준 40,787명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600명대에 이르면서, 3차 유행에 다시 직면해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세가 반복되어 왔고 방역생활은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경제적 문제, 교육, 돌봄, 코로나 블루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그 중에서도 가정 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교육과 돌봄’ 문제이다. 특히 아직 돌봄이 필요한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돌봄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긴급돌봄이 아직 체계가 잡히기 전에는 가정 내에서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개별돌봄(아이돌보미 등), 유급 및 무급 휴가, 재택근무, 조부모 도움 등 일시적 방편으로 돌봄 공백을 대처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으나 학습의 관리 및 돌봄의 공백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교과과정의 온라인화, 돌봄의 공백 등으로 인한 가정 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자녀들의 방치로 인한 사건사고, 학대의 증가 등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일상의 생활이 가장

심하게 파괴된 ‘고위험군 일상마모 집단’이 ‘주부’로 나타난 최근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가정 내 부담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유명순, 2020).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얼마나 반복될 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020년 4월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는다. 이제 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며 생활 속에서 감염병 위험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방역활동이 우리의 일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코로나19에서 겪었던 교육과 돌봄 시스템의 마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정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각개 전투할 수밖에 없고, 주부에게 그 막대한 책임이 가중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기반의 문제해결구조는 심각한 사회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첫째, 가정의 정신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 감염병 재난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안과 공포, 우울 등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일으킨다(이은환, 2020). 그런데 교육과 돌봄의 공백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가정의 주부들은 더욱 가중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전업주부의 불안/우울감 수준은 59.9%로, 모든 직업군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이은환, 2020). 가정 내 주부의 역할을 고려하면, 이는 가정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미 심각한 수준의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올 때마다 가정이 교육과 돌봄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면,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마주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우리는 교육과 돌봄 문제를 가족기반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시스템으로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우리의 도시에는 이미 교육 및 돌봄과 관련된 사회적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팬데믹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프라들의 관계와 접근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팬데믹에 대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적 시스템을 재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가정들이 교육 및 돌봄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실질적인 필요들을 검토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에서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가정에 내재된 문제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여러 주요한 이슈(방역, 경제, 학교의 개학 연기 등)에 밀려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왔다. 코로나가 장기화된 현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공론화되었고, 가정 내 어려움 특히, 교육 및 돌봄에 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법, 제도 등의 제약들로 인해 아직까지 효과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지 못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학교의 기능축소가 야기한 가정 내 어려움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현 상황은 기존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관련 문헌, 참고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효과적이고 정책적인 제언을 위해 현재의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 혹은 향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단기, 장기적인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2_연구방법과 내용

1) 연구방법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분석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이은환, 2020; 유영순 외, 2020). 이는 현재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 심리적 어려움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특정된 선택지 안에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설문조사로는 응답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은 팬데믹의 장기전을 위한 대책으로서 사회적 시스템 간 세심한 연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야기한 교육과 돌봄 문제로 인해 각 가정이 처한 어려움과 요구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면담은 개인 또는 다수의 연구 참여자 간에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특히 반구조화된 면담은 일련의 구조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더 깊게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면담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16). 이를 통해 단순히 설문지만을 이용한 방법 등에서 오는 응답의 한계가 보완될 수 있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가능하게 된다.

면담의 대상은 크게 초등학생을 둔 가정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초등생으로 정한 것은 다른 학년에 비해 교육과 돌봄의 부담이 동시에 더 많이 발생하는 집단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먼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들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둔 가정의 주 양육자를 1:1 개별 면담한다. 면담 대상은 각각 다른 가정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 문제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족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외벌이 가정의 주 양육자
- 2) 돌봄에 대한 주변의 도움이 없는 맞벌이 가정의 주 양육자

- 3) 돌봄에 대한 주변의 도움이 있는 맞벌이 가정의 주 양육자
- 4) 코로나19 이후 고용의 변화가 있는 가정의 주 양육자

한편 현재 학교의 교육과 돌봄 시스템, 그리고 학교 및 도시의 모습에 대해 그룹 인터뷰를 실시한다. 이미 개별 면담을 통해 가정 내 어려움에 대해 고찰한 경험이 있는 주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통해 정책적 제언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2) 연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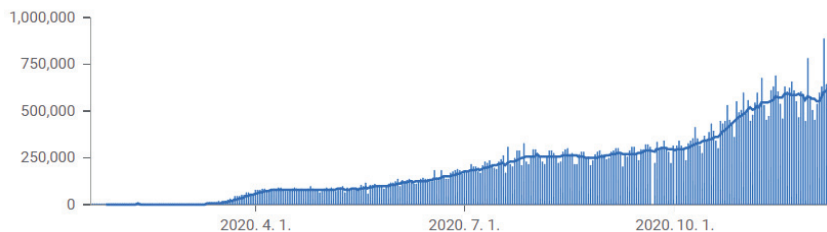
우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의 상황과 관련한 학교의 정책들에 관해 정리하고, 지금까지 연구된 관련 내용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따라 개별 인터뷰를 통해 진단된 가정 내 어려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학교와 관련된 가정 내 역할 증가와 부담, 어려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더불어 가정 내에서 야기된 어려움들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룹 인터뷰를 통해 단기, 장기적 대안을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단기적 접근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고, 장기적으로는 학교 및 도시의 형태, 기능에 관해 언급되었다.

02. 문헌 검토

1_코로나19 상황 변화

1) 코로나19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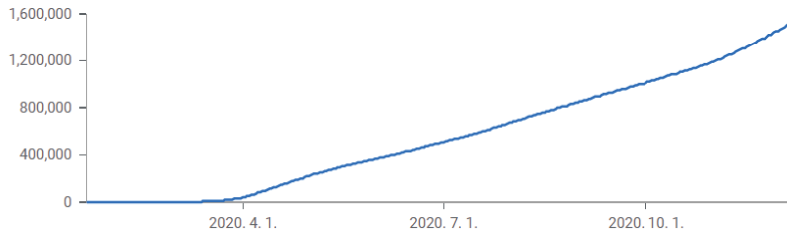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COVID-19)에 대해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endemic)을 선언했다. 2020년 12월 12일 현재, 확진자수는 누적 7천만 명에 이르렀고,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확진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월 이후 확산 속도가 더욱 크게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3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출처: 구글뉴스 (<https://news.google.com/covid19/map>)

[그림 2-1] 코로나19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

이에 따라 전 세계의 누적 사망자 수도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0년 12월 12일 현재, 전 세계의 누적 사망자 수는 총 159만 명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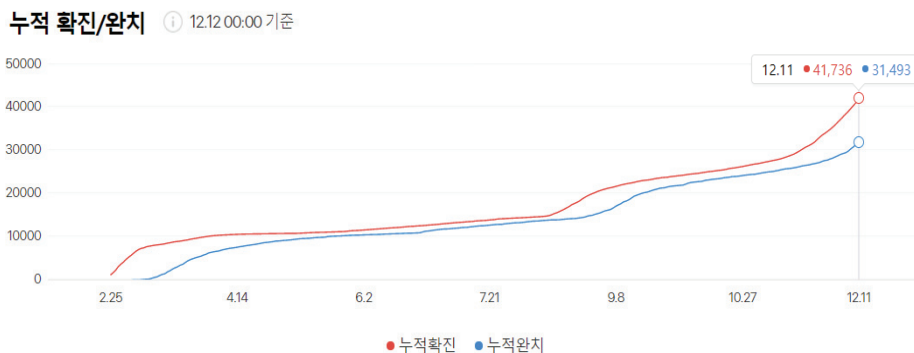
출처: 구글뉴스 (<https://news.google.com/covid19/map>)

[그림 2-2]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누적 사망자 수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최초 국내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3월 대구를 중심으로 '1차 유행', 8월 중순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시작되었으나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왔다.

그러나 겨울철 낮은 기온에서 더욱 활발해지는 바이러스 특성과 더불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3차 유행'의 중심에 있는 현재의 상황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12월 12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950여 명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에 발병한 이래 최고 신규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있다. 누적 확진자 41,736명으로 [그림 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확진자 증가 추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중이다.



출처: 코로나19 발생 현황 (<https://news.daum.net/covid19>)

[그림 2-3]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 추이(누적)

2) 우리나라의 대응 및 관련 학교 정책

우리나라의 방역체계는 3T 즉, 검사(testing)-추적(tracing)-치료(treatment)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대량의 빠른 검사, 추적을 통해 확진자를 조기에 구분하여 격리, 치료하는 것으로 확산을 방지하고 치명율을 낮출 수 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제한 및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에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은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기간과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각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신규 확진자 수와 지역 감염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해졌다. 2020년 11월 2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1~3단계에서 1, 1.5, 2, 2.5, 3단계 총 5단계로 세분화되었고, 11월 7일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었다.

[표 2-1]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적용기간 변화

구분	적용기간	비고
사회적 거리두기	2.29~3.2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22~4.19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20~5.5	
생활 속 거리두기	5.6~	
수도권 한정 강화된 방역조치	5.29~6.14	
서울·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8.16~8.1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8.16~9.27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8.23~9.27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8.30~9.13	
추석 특별방역 조치	9.28~10.11	
전국 2단계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10.12~	
수도권 및 강원도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1.19~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11.2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12.8~(3주간)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일일 브리핑 이슈 모아보기
<http://ncov.mohw.go.kr/lastBannerList.do?pageIndex=7&brdId=3&brdGubun=39&dataGubun=4>

다중이용시설(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모임·행사, 스포츠관람, 교통시설이용, 등교, 종교 활동, 직장근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등교는 학교별 밀집도의 정도를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2]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등교에 관한 지침(2020년 12월 현재)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단계		전국적 유행단계	
등교	밀집도 2/3 원칙, 학교별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1>

[표 2-3]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부 및 학교 운영에 관한 조치계획들을 정리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 3월은 등교 중단 혹은 개학 연기가 발표되었고, 3월 31일에는 등교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온라인 학습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부터는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었다. 온라인 학습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5월 말부터 순차적 등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8월 중순 수도권 2단계 격상으로 인해 1차례 개학이 연기되었다. 학교는 밀도유지 방법에 대한 설문(학년별 밀도유지 혹은 학급별 밀도유지에 대한 설문)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1/3과 2/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표 2-3] 사회적 거리두기와 학교 정책 변화

공고	공고 내용	기간	상세 내용
2.23	1차 개학 연기		개학(3.2) ▶ 연기(3.9)
3.2	2차 개학 연기		개학(3.9) ▶ 연기(3.23)
3.17	3차 개학 연기		개학연기(4.6) 간급돌봄 추가 신청(3.23~4.3)
3.2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3.22~4.5	모든 학원 휴원 권고(4.5까지)
3.27	서울교육청: 원격교육 환경현황조사		스마트 기기 보유 현황 / 대여 희망 여부
3.31	등교 무기한 연기, 온라인 학습 준비		

공고	공고 내용	기간	상세 내용
4.2	온라인 학습 데이터 무료 지원 안내		EBS, 디지털교과서, 사이언스올, 엔트리, 커리어넷 연말까지 데이터 무료 지원
4.2	4차 개학 연기(학년별 4.16, 20일)		긴급돌봄 5차 추가 신청(4.6~4.14) 1~3학년: 4.20 / 4~6학년: 4.16
4.5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 연장	~4.19	4.19(일)까지 모든 학원 휴원 권고
4.13	초등학교 원격수업 안내		1~3학년: 4.20~ 등교일까지 4~6학년: 4.16~ 등교일까지 온라인 개학 준비: 4.10~온라인개학일
4.21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문 학습 지원 프로그램 안내		여성가족부: 시군소재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정지원 센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 강사지원 상담센터 / 조손 가정 등 가정 내 원격수업 조력자 없는 초등학생 가정 우선 지원
5.6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5.6~	
5.14	학년별 등교일 안내		1,2학년: 5.27 부터 3,4학년: 6.3 부터 5,6학년: 6.8 부터 5.19 학년별, 반별 등교방식 설문조사
5.22	학년별 등교 수업 방식 안내	주 1회 등교	예) 서울 관악구 00초 5.25 등교개학 이후 방과 후 학교 참여 여부 설문조사-전교생 매일 등교 시점부터 실시로 결론 남
5.27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안내		출석등교 1주 전부터 실시
5.30	학생 식재료 꾸러미·쿠폰 안내		6.8~6.30 꾸러미 기부신청 기간
5.27	학년별 순차적 등교 시작		
8.1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8.30~ 9.13	개학 연기
8.26	2학기 시작	8.26~ 9.11	전면 원격 수업
9.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한 연장	9.11~ 9.20	수도권 전면 원격수업 기한 연장
9.17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안내		초등학생 1인당 20만 원
9.17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9.21~ 10.8	등교일 교내 밀집도 1/3 예) 서울 관악구 00초 1~4학년: 주 2회, 5, 6학년: 주 1회
10.7	서울시교육청: 등교방안 유지 안내	10.12~ 16	예) 서울 관악구 00초 1~4학년: 주 2회, 5, 6학년: 주 1회
10.13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 발표	10.12~	밀집도 2/3 원칙, 학교별 조정 가능 예) 서울 관악구 00초 1학년: 주 5회, 2~6학년: 주 3회

공고	공고 내용	기간	상세 내용
11.18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발표	11.19~ 12.2	밀집도 2/3 준수 예) 서울 관악구 00초 1학년: 주 5회, 2~6학년: 주 3회
11.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	11.24~	밀집도 1/3 원칙, 최대 2/3 내 운영 가능 예) 서울 관악구 00초 1~3학년: 주 3회, 4~6학년: 주 2회
12.6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표	12.8~ 12.28	등교일 교내 밀집도 1/3 준수 (일 최대 2개 학년 등교) 예) 서울 관악구 00초 1~4학년: 주 2회, 5,6학년: 주 1회

- *자료: 1) bbc 뉴스 코리아, 2020.03.17. '코로나19: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4월로 연기'
<https://www.bbc.com/korean/51923209>
 2)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lastBannerList.do?pageIndex=7&brdId=3&brdGubun=39&dataGubun=4>
 3) 국민일보, 2020.03.31. '등교개학 무기한 연기.. 9일부터 중·고3학년' 온라인 등교'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426218>
 4) 뉴스스토리, 2020.04.01. '코로나19' 4차 개학 추가 연기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54>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4.04.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165>
 6) 의료복지뉴스, 2020.05.04.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
 7) 한겨레, 2020.05.04. '고3 시작으로 13일부터 등교...초1~2학년 20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43556.html>
 8) 뉴시스, 2020.06.29. '서울 학생 '식재료 꾸러미' 배송 시작 내달 31일까지'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9_0001077013&cid=10201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9.24.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232>
 10) 서울 관악구 00초는 학교 알리미 공지 내용 참고

3) 정부의 긴급돌봄 정책과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 정부의 긴급돌봄 정책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정부 각 부처는 긴급돌봄과 관련된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초기 모든 학교의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함께 협력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 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대한민국정부 보도자료, 2020.2.28.). 교육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을 제공할 것을 발표하였고(3월 6일 발표에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이 휴원하더라도 긴급보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여성가족부는 아동돌봄서비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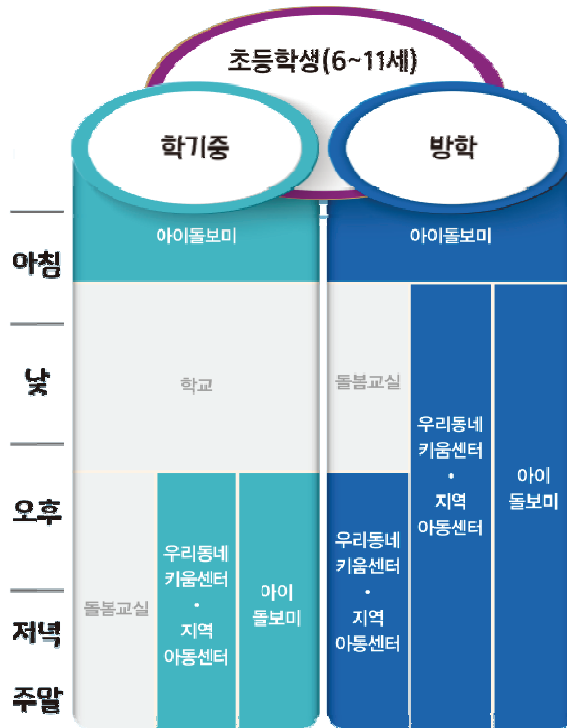
2020년 8월 27일, 교육부는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돌봄교실의 밀집도를 최대 10명 내외로 분산 배치할 것과,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을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돌봄 초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및 단위 학교 여건을 고려,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서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이란,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이며, 수용 범위 초과 시 저학년 맞벌이 가정을 우선 고려 검토한다고 말하였다¹⁾.

●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서울시는 2019년 3월부터 ‘온마을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공적 초등돌봄 3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6월 26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촘촘한 초등돌봄’을 구축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림 2-4]는 서울시의 「온마을 아이돌봄체계」를 보여준다.

1)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출처: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9549>

[그림 2-4]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초등학생)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생이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4 참고].

첫째,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 사업에 속하며, 각 초등학교마다 운영 중이다.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지원자는 저소득층 관련 서류, 맞벌이 가정 관련 서류 등 초등돌봄교실 입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이용 가능하다. 크게 초등돌봄교실(초등 1~4학년)과 방과 후 학교 연계형돌봄교실(초등 5~6학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12세의 초등학생이 중점 운영대상이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서울시가 운영 중이다. 가정의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후 이용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상시돌봄과 일시돌봄을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센터 수를 확장 중이며,

현재 서울 24개 자치구에서 127개소를 운영 중이다(2020.12.31.기준).

[표 2-4] 서울시내 초등학교 이용가능 돌봄서비스

구분	내용		개소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초등 돌봄교실	· 중점 운영대상: 초등 1~4학년 ·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선정 · 돌봄대상자는 저소득층 관련 서류, 맞벌이 가정 관련 서류 등 초등돌봄교실 입급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선정	607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 중점 운영대상: 초등 5~6학년(학교별 여건에 따라 초등 1~4학년 대상 운영 가능)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고학년 중심으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주 1일,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시)	· 중점 운영대상: 만 6~12세 초등학교 · 소득수준 무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후 이용 가능 · 상시돌봄(종일돌봄/시간제돌봄), 일시돌봄으로 구분하여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과 연계하여 운영		127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 중점 운영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교 밖 청소년 포함) ·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가능		438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	· 중점 운영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 ·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정기이용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이용,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 지연		
공동육아 나눔터 (여성가족부)	· 중점 운영대상: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 누구나 ·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및 그룹활동 모임을 위한 장소 제공, 부모 및 양육자에게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 가족품앗이 활동 자원(그룹별로(2가정 이상) 매일, 주 1~2회, 월 1~2회 등 진행)		27

출처: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 <https://icare.seoul.go.kr/icare/>
 보건복지부 <https://welfaresystem.kr/>
 아동돌봄서비스 <https://old.idolbom.go.kr/>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343>

셋째,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에 속하며,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 신청 가능하다. 서울 시내에 438개의 지역아동 센터가 운영 중이다.

넷째,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사업에 속한다.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시간제 서비스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지원금 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으로, 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중에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포함된다. 정기이용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 이는 여성가족부에 속한 사업으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소득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다.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활동 및 그룹활동 모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부모 및 양육자에게 육아정보 나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한다. 또한 가족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27개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 중이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서울시의 공적 돌봄서비스도 모두 긴급돌봄 체계로 전환되었다.

2_관련 문헌

1) 가정 기능의 사회화

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임금으로 보상받지 못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임금노동자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조건으로 ‘그림자 노동’이 출현하였다(이반일리치, 1981). 엄격히 말하면 기존의 노동이 임금과 비임금 노동으로 구분되면서 주부의 가사 및 돌봄 노동이 대표적인 그림자 노동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가족의 규모가 축소되고 내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특히 대가족제도에서 육아를 절대적으로 지원해주던 가족 내 지원체계가 상실되고 여성의 교육, 사회 참여 기회가 증대되면서 자녀양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기능이 강조되었다(이경옥, 2007). 가족 내 돌봄의 기능이 사회화되면서 요양기능, 어린이집, 초등 돌봄 등 돌봄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시설이 다양화되었다.

2)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어려움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학교 및 다양한 돌봄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에게 있어 학교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돌봄의 기능이 중첩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 운영의 중단으로 인해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이 가정으로 급격히 회귀되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육아정책연구소(2020)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36.2%가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익중(2020a)은 평일 낮 시간대 보호자 없이 집에 머무르는 초등학생이 46.8%에 이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일상의 변화로 돌봄의 공백을 꼽고 있다.

최윤경(2020)은 코로나19 발생초기 3월에는 휴가 및 재택, 근무시간 조정, 조부모 및 친인척 도움 등 가정(개별) 돌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8월에 시행한 조사에서는 긴급돌봄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가정 피로도가 증가되고, 이로 인한 긴급돌봄의 수요 증가는 기관 및 돌봄 체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존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일상적 돌봄체계와 재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적 상황에서 긴급돌봄체계가 효과적으로 확장, 연계될 수 있도록 정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사회적 돌봄 체계만으로는 효과적인 돌봄 정책을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익중(2020)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아동 돌봄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기관을 통한 돌봄 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가정 내 개별 돌봄(가족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정책 및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택근무나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 있으므로 정부는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개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03. 심층면담

1_심층면담조사 개요 및 분석의 틀 설정

1) 주요 내용

심층면담을 위한 질문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표 3-1] 주요 질문 및 토의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별 면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정 내 일상의 변화는 무엇인가. 특히 학교라는 교육과 돌봄의 기능을 수행해온 공공기관의 잠정적 기능 중단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그룹 인터뷰	학교 및 지역사회의 전염병 장기화 및 대비를 위해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인가. 지역사회(마을) 및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

관련한 질문들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가정내 변화된 일상에 대해서 알아본다.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가정 내 삶의 변화는 무엇인가: 소비, 교육, 문화활동 등
- 변화된 일상의 긍정적인 점과 어려움은 무엇인가.
- 일상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중압감은 무엇인가. 누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학교와 연관된 가정 내 일상의 변화를 살펴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등 학교는 교육 뿐 아니라, 돌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휴교 및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의 부재 경험, 그리고 온라인 개학 등으로 인한 교육 지도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살펴보고자 한다.

- 외벌이/ 맞벌이 등 가정형태에 따른 자녀 돌봄의 변화는 무엇인가.
-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학습지도 누가 전담하며 적응 정도는?
- 코로나19 전후의 사교육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점심식사, 온라인 교육의 진행 및 과제 수행 등은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는가.
- 현재 부모, 돌보는 주체, 자녀 등의 적응 정도, 심리적 어려움 등은 무엇인가.
- 1년 이상 장기화 될 때,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가.
- 무엇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일까?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는가.

마지막으로 개별 면담을 통해 가정 내 어려움에 대해 고찰한 경험이 있는 주 양육자들과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미 가정 내 어려움에 대해 숙지하고, 이를 통해 학교, 지역 사회,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일정 기간 고민해 보았기 때문에 정책적 제언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 학교, 돌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의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지역사회(마을)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 현 상황의 장기화, 혹은 반복적 전염병의 발발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2) 면담 및 토론의 진행

면담의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의 자녀를 둔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성(맞벌이 유무, 자녀 수 등)이 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다.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을 가정의 여러 구성 중 하나로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긴급돌봄 제공 등)에서 이미 우선 고려대상으로 분류되어 지원이 되고 있거나 지원을 위한 논의(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의 목적이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이 아닌, 이들을 포함한 보다 보편적인 접근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팬데믹 혹은 유사 상황에서 가정의 변화 및 어려움을 파악하여 사회에 필요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우리 도시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3-2] 개별 면담자의 주요 특성

	자녀 구성	주 양육자 고용 형태	면담 진행
1	초4(여) / 초2(여)	직장인	2020.7
2	초2(여) / 5세(여)	직장인	2020.7
3	초5(여) / 초3(여)	직장인	2020.7 / 2020.9
4	초5(여) / 초3(남)	자영업	2020.7
5	초4(남) / 초2(남)	프리랜서	2020.7 / 2020.9
6	초3(여) / 7세(여) / 4세(남)	프리랜서	2020.7 / 2020.9
7	초3(여)/ 초1(여)	프리랜서 ▶ 전업주부	2020.7 / 2020.9
8	초3(남)	프리랜서 ▶ 전업주부	2020.7 / 2020.9
9	초3(남) / 중학생(남)	전업주부	2020.7

면담의 진행은 일대일 개별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계획에 따르면 각 1회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20년 8월 중순 이후 수도권 2차 유행으로 8월 18일~9월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대폭 축소하는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가정 내 변화 및 스트레스, 어려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그룹 인터뷰에서는 4인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9월 말에 2회 실시하였다.

3) 분석의 틀 설정

코로나19 이후 초등학생을 둔 가정의 일상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면담 대상자 자녀들의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살펴보았다. [표 3-3]과 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이전까지 면담 대상자 자녀들의 일상은 학교, 돌봄교실 및 방과 후 수업, 학원, 또는 구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일과 시간 대부분은 집이 아닌 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시간동안 부모는 생업에 종사하는 등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다. 특히 면담 대상자 중 다수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교실, 방과 후 수업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각 가정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표 3-3] 코로나19 이전, 면담 대상자 자녀들의 일상

주 양육자 고용 형태		자녀들의 일상*			
1	직장인	학교	학원1	학원2	집
2	직장인	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수업	학원1	집
3	직장인	학교	학원1	학원2	집
4	자영업	학교	학원1	학원2	집
5	프리랜서	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수업 또는 학원1	학원2	집
6	프리랜서	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수업1 방과 후 수업2		집
7	프리랜서 ▶ 전업주부	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수업	구민센터 프로그램	집
8	프리랜서 ▶ 전업주부	학교	방과 후 수업	학원1	집
9	전업주부	학교	방과 후 수업	집	

*일과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코로나19 이후 가정의 일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면담 결과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 면담 결과는 크게 ‘초등학교와 관련된 일상’과 ‘가족의 일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면담을 통해 초등학교의 주요 기능을 ‘교육(학습)’, ‘돌봄’, ‘방과 후 교육’, ‘사회적 교류’ 등 네 가지로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면담 대상자 중 특히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정의한 초등학교 기능에 따른 것이다. 이에 기반을 두고 초등학교 관련 일상 변화에 대한 면담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가족의 일상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가족 일상의 변화, 구성원의 부담, 주 양육자의 부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표 3-4]는 분석의 틀을 정리한 것이다.

[표 3-4] 면담 결과 분석의 틀

초등학교와 관련된 일상				가족의 일상
교육(학습)	돌봄	방과 후 교육	사회적 교류	
○ 온라인 수업 ○ 등교 수업 ○ 학습 격차	○ 긴급돌봄 ○ 사적 돌봄 ○ 조부모 돌봄 ○ 아이돌끼리 ○ 엄마 돌봄 ○ 아빠 돌봄 ○ 이웃 돌봄	○ 사교육 ○ 공교육 (방과 후 수업)	○ 교류의 범위 ○ 교류의 횟수 ○ 오픈스페이스 ○ 화상 수업	○ 가족 일상 변화 ○ 구성원 부담 ○ 주 양육자 부담

2_교육(학습) 관련

1) 교육 형태의 변화

갑작스럽게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이에 대응할 교육부 차원의 매뉴얼이 없어 학교마다, 학년마다 임기응변식의 대처가 이어져 왔다. 온라인 수업 전환 이전 뿐 아니라 전환 이후, 등교 수업이 결정된 이후에도 혼란은 이어졌다. 온라인 수업의 운영 시스템,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도, 선생님도, 학생도 학부모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상황이었기에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해당 시기 당사자들의 요구 사항은 무엇이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어려움

코로나19 이후 면담 대상자 가정들이 교육 문제로 겪은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수업의 운영 시스템의 혼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후 학습, 과제, 공지 등의 경로가 e-학습터(또는 위드랑), 클래스팅, e 알리미, 건강상태 자가진단 등으로 분산되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가 전달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인 e-학습터(또는 위드랑)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버퍼링이 잦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와 부모, 아이들 모두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초기만큼의 혼란은 없지만, 면담 이후 보고서를 쓰는 시점까지도 최소 네 개의 플랫폼을 사용해야 함은 변함이 없었다.

“과제 중에는 e-학습터 게시판에 올려야하는 것도 있고, 클래스팅이라는 다른 앱에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하는 것도 많아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처음에는 어른인 저도 헷갈리더라구요. 뭔가 하나로 통일이 안 되고...시간이 흐르며 선생님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지고, 저와 아이도 익숙해져 어려움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렇지만 각각에 올리는 내용의 카테고리를 일정하게 정하신 것 뿐, 여러 가지 플랫폼을 동시에 각각 쓰는 것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푼푼한 아이야 스스로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이 혼자

서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인지 할머니가 주로 돌보는 아이나 엄마가 챙겨주지 못하는 아이들은 클래스팅이나 e-학습터에 과제를 거의 못 올리는 것 같아요.(8. 프리/전업)”

“위드랑은 버퍼링 너무 많이 걸리고, 음향이 너무 불규칙해요. 창이 안 열리거나 유튜브로 넘어갈 때 볼륨이 갑자기 너무 커지거나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스트레스의 반이에요.(7. 프리/전업)”

“온라인 수업이 중간에 끊기고, 처음부터 들어야 하니까 아이가 엄청 짜증을 냈어요.(9. 전업주부)”

● 온라인 수업의 내용 부실

선생님이 e-학습터(또는 위드랑)에 올려둔 내용을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아이 혼자서 내용을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다. 선생님은 주로 유튜브, 아이스크림 홈런, EBS에서 필요한 영상을 찾아 올려주는데, 짤막한 영상 몇 개로 아이들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수업의 질이 낮다는 의견과, EBS 수업이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짤막한 영상 모음들보다 더 나은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얼마 전 아이와 얘기를 나누어보니 온라인 수업은 너무 뒤죽박죽이라고, 선생님이 어떤 날에는 가끔 EBS 영상을 올려주시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려면 차라리 그 영상으로 수업을 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EBS가 훨씬 잘 가르쳐준다구요. 그래도 학교에서 선생님께 직접 배우는 게 훨씬 좋다고 해요. 똑같은 것도 선생님께 직접 배우면 훨씬 재미있고, 쉽대요. 노트에 쓰는 것도 학교에서 쓰면 재밌대요. 집에서 쓰는 건 숙제라서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하더군요.(8. 프리/전업)”

“e-학습터가 아이들에게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10-20분짜리 영상만 계속 본다고 되는 건지... 교과서와 영상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영상은 영상대로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아침 자습시간에 명작동화를 20분씩 보게 하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 시간에 애들은 자

기가 공부할 것 하거나, 다른 걸 보거나 하더라구요. 연령에 맞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수준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4. 자영업)”

“학습의 동기부여가 안 되니까 온라인 틀어놓고 판짓을 해요. 집중도가 떨어지죠.(6. 프리랜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애들이 이걸로 얼마나 공부가 될까 걱정이 많이 돼요. 학원도 안가고, 시험은 다가오니 더 걱정이 돼요.(9. 전업주부)”

● 온라인 수업의 학습 관리는 양육자의 몫

온라인 수업의 학습관리는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아이가 온라인 수업을 다 듣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클래스팅 게시판에 올리면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해야하는 경우가 있었고, 선생님이 아이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부모가 직접 아이의 모든 학습 수행 여부를 검토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줘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습에 선생님이 할 역할을 내가 왜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학년일수록 선생님의 손이 많이 가야 하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엄마가 지키고 있어야 하잖아요. 둘째 아이가 저학년이니까 더 집중하게 되고, 옆방에서 혼자 학습하는 첫째 아이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첫째가 뭔가 빼먹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께 연락이 와요. 그럼 또 엄마가 일일이 체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7. 전업주부)”

“처음에는 제가 좀 챙겨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도 바쁘고, 애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안 챙겨요. 첫째 아이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엄마들 신경 안 쓰게 하려고 하시는지, 아이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을 하세요. 저는 몰랐는데 어찌다가 아이 폰을 보니 선생님이 ‘OO야 ~ 학습 안 했다’고 연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습량은 항상 100%가 채워지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학교 가기 전날 교과서에 뭐가 채워져 있으면 그냥 보내요. 잘했든 못했든이요.(1. 직

장인)”

저학년의 경우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습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어지자 부모가 직접 선생님이 되어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고학년은 별도의 사교육 도움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을 고려 중인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부모가 공부를 직접 챙기지 못하거나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학습 부진이 예상된다.

“1학년은 수업이 힘들더라고요. 엄마가 교사를 완전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6. 프리랜서)”

“새로운 과목 같은 경우에 모르는 용어라든지, 패턴 같은 것을 아이들이 스스로 익힐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부모의 역할이 많이 필요했어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도 부모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에 따른 거잖아요. 기존에 학교에서 해주던 역할을 학교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공백이 생기는 거죠. 학교 수업 끝나면 하다못해 문제집이라도 풀게 해야 하니 힘들어요. (7. 프리/전업)”

“학교의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아이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아이스크림 홈런, 밀크티, 와이즈캠프와 같은 스마트 학습기기를 신청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8. 프리/전업)”

“엄마들하고 얘기하면 초3부터는 분수/소수도 들어가고 하니 혼자 봐줄 수가 없겠다고 해요. 같이 앉아서 같이 풀어줘야 아이가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e-학습터에서 해주는 것만으로는 아이 혼자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해요. 3학년 엄마들은 수학학원에 보내야하나.. 고민하더라고요.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안 되니 엄마가 옆에서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해줘야 하니까요. (4. 자영업)”

한편 면담 대상자 가정 중 한 아이의 담임선생님은 온라인 수업과는 별도로 주 3회

zoom 화상 수업을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초기부터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아이와 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우리 아이 반 선생님은 온라인 개학으로 e-학습터로 수업하기 전부터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zoom 화상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할 수 있는 사람만 편하게 하시라, 절대 진도에 관계된 걸 한다기보다 재밌는 이야기, 글짓기, 퀴즈 등으로 교감하려 하는 거예요’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아이가 온라인 수업 전 기기 사용에 대한 트레이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개학을 한 이후에도 e-학습터와 별개로 월, 수, 금요일에 한 시간씩 꼬박꼬박 zoom 화상 수업을 제공해주고 계세요. 선생님의 재량, 적극성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러워요.(5. 프리랜서)”

● 아이들의 온라인 기기 사용 시간 증가

면담 대상 9가정 중 3가정은 온라인 학습 때문에 노트북, 아이패드 등의 기기를 새로 구입하였다.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온라인 기기 활용으로 인해 아이들이 유튜브, 게임 등에 접속하는 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었다. 일하는 엄마들의 경우 직접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노트북은 원래 아이들에게 주지 않았던 것인데, 기기가 없다보니, 작업을 위해 쓰고 있던 노트북을 아이들에게 줬어요. 사실상 유해 영상이 걸러지지 않고 아이들에게 노출될까봐 걱정이 돼요. 물론, 차단 기능이 있는 건 알지만, 시간을 내어서 그걸 설정하고 하는 것도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3. 직장인)”

“아이패드 하나(어차피 저도 기기가 필요해서)를 샀고, 큰애는 데스크탑을 사서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제가 집에 없으니까 아이가 딴 거 볼까봐, 그림판에서 그림만 그릴까봐 걱정이 됐어요. 작은 애가 쓰는 아이패드는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서 통제하고 있어요.(1. 직장인)”

“위드랑 숙제도 선생님이 체크하기 위해서는 애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접속해서 계속 올려야 하는 상황이니깐 유튜브나 게임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

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좀 잡아가야할 때인데 그걸 못하니까 걱정하더라
 구요.(4. 자영업)”

● 등교 수업은 성취도 평가 위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이후 시작된 등교 수업은 대부분 학업 성취도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 전무하고, 친구 간 대화가 불가하기도 했다. 새 학년이 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지만, 마스크에 가려져서 친구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점점 더 힘들어하게 되었다.

“사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현장 중심의 아이들의 체험 위주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요. 그리고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고, 다양한 토론, 운동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가야 하는데, 일단은 그게 안 되는 거죠.(7. 프리/전업)”

“일주일에 한 번 학교에 가서는 시험을 본단 말이지요. 친구들이랑 배운 내용을 함께 얘기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시험을 보는 거죠. 시험 보러 학교에 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다는 것에 엄청 기대했는데, ‘이게 뭐지? 학교를 가는 이유가 시험을 보러 가는 거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7. 프리/전업)”

“1학년인 아이가 학교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학교 한 번 가보니까 학교가 재미없어서 이제는 가기 싫어해요. 학교가 싫대요. 너무 안타까워요.(7. 프리/전업)”

● 학습 격차

현재의 온라인 수업 시스템에서 부모가 학습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학습 부진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부모들은 학습 수준에 중위권이 사라지고 학습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 말한다. 상위권의 아이들은 스스로 잘할 것이고, 돈 많은 집의 아이들은 사교육의 도움을 받을 것이지만 중하위권의 평범한 아이들은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 다녔다면 일정 수준을 유지했을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중 크게 뒤쳐질까봐 부모들의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격차는 매우 크게 느끼는 중이에요. 그래도 나름 집에서 여러 가지 학습을 시키고 있지만,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온라인 학습도 제대로 하지 않는 친구가 꽤 있는 것 같아요.(3. 직장인)”

“4학년이 되니 걱정이 돼요.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우리 애들만 뒤쳐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돼요.(5. 프리랜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된다면 학습 격차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의 온라인 수업 형태로는 절대 등교 수업 만큼의 학업 성취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온라인 수업을 아이가 재미없어 하니까요. 재미없는 수업을 엄마가 끊임없이 잔소리하며 끌어가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예요.(8. 프리/전업)”

3) 요구

코로나19 이후 겪고 있는 교육 관련 어려움에 대해 면담 대상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통합된 온라인 수업 운영 시스템 구축

첫째, 팬데믹 상황 시 수업 운영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매뉴얼이 필요하다. 지금은 모든 것이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수업 운영에 차이가 크다.

“저는 부모이지만, 교사인 입장이니깐..(중략).. 문제는 교육부 차원의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통일된 창구를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교육부가 학교에게 어떤 시스템을 쓸지 알아서 하라며 너무 자율에 맡기니, 그걸 정하는 것부터 너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달라요. (방법에 대해) 너무 광범위하게 열어준 거예요. 과제 중심도 온라인 수업이 될 수 있고, EBS를 올려도 온라인 수업도 될 수 있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라 해놓고 너무 가이드라인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정해진 플랫폼도 없었어요.(1. 직장인)”

둘째, 안정되고 통일된 학습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공지, 학습, 과제, 소통이 모두 하나의 플랫폼에서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야 이용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아이들이 직접 플랫폼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간의 스마트 학습 플랫폼들은 이미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 온라인 수업의 내용과 수준 향상

온라인 수업 강의 수준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온라인 수업은 결코 학교 수업을 대체할 수 없다. 초등 교육의 경우 수업 영상은 EBS 강의가 더 나으며, 대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솔직히 초등학교는 통일해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EBS 같은 걸로요. 내신도 없잖아요.(1. 직장인)”

“원격 학습에 대한 질을 많이 높여야 해요. 지금은 온라인 수업의 질이 형편없어요. 기본적인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콘텐츠의 다양화,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시스템 보완되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코로나19 초반 EBS 수업을 한 것이 선생님들의 원격수업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퀴즈, 게임과 같은 도구를 개발, 도입하여 아이들의 흥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습에 대한 메인으로 원격수업을 삼고자 한다면, 학교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구요. 토론, 체험, 관찰 등은 학교에서 강화해야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해요.(7. 프리/전업)”

● 학습관리 체계 구축

화상 수업, 질문 게시판 등을 통해 선생님이 아이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선생님이 e-학습터에 올릴 내용을 매일 찾고 올리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것 보다는 아이들이 학습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학습관리가 수행여부 체크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 적절한 학습 관리 체계가 부재할 때 학습 격차는 발생한다. 한 사례에서 보듯 담임선생님이 화상으로 직접 아이들

과 소통하는 방식이 학습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

“선생님들이 굳이 유튜브에서 2-3분짜리 콘텐츠를 고르기 위해 매일 고생하
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강의는 EBS로 하고, 화상 수업을 통해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고 부진한 부분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8. 전업주부)”

“4학년 어떤 반은 zoom으로 화상 수업을 한다고 하던데, 그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4. 자영업)”

● 등교 수업 활동 위주로 운영

등교 수업이 수행평가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등교 수업은 온라인 수업에서 할 수 없는 토론, 체험, 관찰, 실험 등의 활동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을 그렇게 잡아두는 장소가 되면 안 돼요. 학교야말로 상호작
용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지요. 체육을 영상을 보고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필요한 것을 생각해봐야 해요.(중략) 사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업
에 대한 보완자료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7. 프리/전업)”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온라인 수업은 필연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아이들의 노출 시간을 증가시킨다. 무분별한 유튜브, 게임 노출을 차단할 수 없다면, 아이들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 학교의 소그룹화

학교를 소그룹으로, 작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학교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작은 학교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수업할 수 있다. 또한 상황이 심각하
여 등교를 할 수 없다 해도, 선생님이 관리해야 하는 학생 수가 적다면, 선생님이 아이들

의 학업을 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아이가 서울형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면담자가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 중 학교의 대응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다.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학교에 간다는 거죠. 신문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는 코로나19가 있는 동안 아예 시골로 가서 1-2학기 전학을 하여 매일 학교를 보내고, 부모는 재택근무를 하는 것을 생각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친구들과 교류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하고 하니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사실 초등학생들은 엄청난 학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경험을 쌓는 게 초등학교의 주된 목적이기에, 그렇게 놓아준 학교를 지향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학생들이 물리는 게 불안하다면 (시골학교처럼) 소그룹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선생님도 한 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보조교사가 있어야할 것 같아요.(7. 프리/전업)”

“지금의 공교육도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해요. 학급을 10명 이내의 소규모로 구성하여,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더라도 선생님이 아이 하나하나의 학업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긴 소규모라면 등교 수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8. 프리/전업)”

“저희 아이의 학교는 서울형 작은학교예요. 학교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담임 선생님이 수업 진도 못나가는 애들 엄마들에게 주 1회 전화해서 직접 챙기시는 것 같아요. 학교가 작다보니 교장, 교감이 지침을 내리면 담임들이 잘 수행하는 것 같아요. 수행여부가 체크가 되니까. 등교는 하루에 2반씩하고 있어요. 애들이 안 겹치니까 좋고요. 한 학년당 2학급, 한 학급당 17명이에요. 선생님들이 애들 각자의 특성을 다 기억해요.(6. 프리랜서)”

3_돌봄 관련

1) 돌봄 형태 변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면담 대상자 아이들의 낮 시간대(오전 9시~오후 5시) 돌봄 형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이전에 아이들은 모두 오전 시간을 학교에서 보냈고, 점심 급식을 먹었다. 9명의 면담 대상자 중 4명의 아이들은 돌봄교실을 이용하였고, 6명의 아이들은 학교의 방과 후 교실에 참여하였다. 면담 대상자 7명의 아이들은 학원을 다녔으며, 엄마가 전업 주부인 아이들만 오후 5시 이전에 집에서 엄마와 보내는 시간이 일부 있었다. 즉 모든 가정의 아이들은 낮 시간 대부분을 학교, 돌봄/방과 후 교실, 학원 등에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유사하던 아이들의 돌봄 형태가 코로나 이후 크게 달라졌다. 면담 대상인 9개의 가정에서 주 양육자는 모두 엄마였고, 엄마의 직업 형태에 따라, 가정 상황에 따라 돌봄 형태가 달라졌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엄마가 직장에 다니는 세 가정 중 한 가정에서만 엄마의 재택근무가 가능하였다. 재택근무가 가능하였던 가정에서는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다가 출근을 해야 하는 시점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사적 돌봄(이모님)을 이용하였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던 한 직장인 엄마의 가정에서는 코로나19 초기부터 면담 시점까지 계속 긴급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겼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했던 또 다른 직장인 엄마의 가정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 친정어머니가 집에 상주하며 아이들을 맡았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격주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할머니가 없는 기간에는 아이들끼리 집에 있었다.

면담 대상자 중 엄마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등교 개학 이전까지 엄마가 아이들과 함께 영업장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이 때문에 엄마의 스트레스가 심화되었고, 등교 개학 이후 둘째 아이만 긴급돌봄교실에 보내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후까지 엄마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가정에도 상황에 따라 대

처 방식이 달랐다. 코로나19 초기 한 가정에서는 엄마가 집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다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친한 이웃들과 돌봄 품앗이를 하며 일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였고, 등교개학 이후에는 긴급돌봄교실에 보내고 있었다. 엄마가 프리랜서인 또 다른 가정의 경우 코로나19 초기부터 면담 시점까지 본인의 사무실에 아이가 함께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표 3-5] 면담 대상자들의 기간별 돌봄 형태 변화 (낮 시간대 9:00~18:00)

유형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020.2.29.~	생활 속 거리두기 2020.5.6.~	등교개학 이후 2020.5.27.~ 면담일(2020.7월)
1	직장인	학교 / 학원	엄마 (재택근무)	사적돌봄 (이모님)
2		학교 / 돌봄교실 / 방과 후 교실 / 학원	긴급돌봄 (엄마: 재택근무 불가)	
3		학교 / 학원	친정어머니 (엄마: 재택근무 불가, 긴급휴가 신청)	친정어머니(4일/2주) 나머지 기간은 아이들만 집에 있음
4	자영업	학교 / 학원	엄마 (가게에 같이 출퇴근)	첫째 아이: 엄마 가게에 같이 출퇴근 둘째 아이: 긴급돌봄
5	프리랜서	학교 / 돌봄교실 / 방과 후 교실 / 학원	엄마	이웃공동체
6		학교 / 돌봄교실 / 방과 후 교실	엄마 (사무실에 같이 출퇴근)	
7	프리랜서 전업주부	학교 / 돌봄교실 / 방과 후 교실 / 학원	3월: 긴급돌봄 4월: 엄마	엄마
8		학교 / 방과 후 교실 / 학원 / 엄마	엄마	
9	전업주부	학교 / 방과 후 교실 /엄마	엄마	

면담 대상자 중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던 엄마가 코로나19로 이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전업주부로 전환한 두 가정이 있었다. 첫 번째 가정은 3월까지 두 아이를 긴급돌봄에 보내며 엄마가 하던 일을 마무리한 후, 4월부터 일을 모두 그만두고 아이들을 전적으로 엄마가 돌보는 경우였다. 두 번째 가정은 코로나19 시작부터 하던 일을 모두 그만두고 온종일 엄마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마지막 가정은 주 양육자인 엄마가 집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가정이며, 전업주부로 분류되었다. 이 가정 역시 코로나19 이후 엄마가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보고 있었다.

2) 어려움

코로나19 이후 돌봄 형태에 따라 각 가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긴급돌봄

긴급돌봄은 부모가 4대 보험 서류 제출이 가능한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의 경우에 보낼 수 있다.(단, 학교의 여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학교에서 맞벌이, 꼭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보내지 말라 해서 안 보내고 있어요. 한 교실에 수용인원이 있으니까. 여기는 돌봄교실이 따로 없고 기존 교실을 쓰는 개념이에요. 애들 가고 나면 선생님이 소독도 해야 하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 아니면 보내지 말라 권고를 보냈어요.(6.프리랜서)”

가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학교의 방침에 따라 긴급돌봄 운영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긴급돌봄 내 별도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친구들과 자유놀이가 가능한 경우 아이의 만족감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반면 긴급돌봄 내 별도 프로그램이 없고, 친구들과 놀이가 불가능한 경우 온종일 너무 지루하여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고 응답하였다.

“긴급돌봄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체육도 하고, 만들기 수업도 하니까 아이들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외부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도 해주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블록도 갖고 놀고, 만들기도 하고 해서 엄청 재밌어해요. 집에 안 오려고 해요.(자영업)”

“아이의 생활에는 변화가 있어요. 학교에 있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방과 후 수업은 없고 돌봄에서 하루 종일 책만 읽다오니깐 너무 재미가 없지요. 매일매일 가기 싫대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안 좋아요.(2. 직장인)”

“방과 후 수업 안하고 돌봄만 하니까 애들이 4-5시간동안 특별한 커리큘럼 없이 교실에 있어야 해요. 책이나 보드게임 있고 그 정도가 갖춰진 상황에서요.(6. 프리랜서)”

긴급돌봄에 보내기 시작한 시점에 따라 가정이 느끼는 어려움에도 차이가 있었다. 기존에도 돌봄교실에 보내던 가정 중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에도 돌봄교실을 유지한 가정은 엄마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아침에 아이를 돌봄교실에 보내고 엄마는 직장에 출근하는 패턴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의 변화가 없어요. 긴급돌봄의 수혜자인 것 같아요.(2. 직장인)”

그러나 기존에도 돌봄교실에 보내던 가정 중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돌봄에 보내지 못한 가정의 경우, 엄마의 스트레스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의 일터에 아이들과 함께 출퇴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다. 이후 등교 개학이 시작되면서 긴급돌봄에 보내게 되자 엄마의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았다고 응답하였다.

“3월~6월 긴급돌봄 보내기 전까지 가게에서 계속 데리고 있을 때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카페에 손님이 오셔서 저는 일을 해야 하는데, 눈앞에서 수업을 제대로 안 하는 게 보이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손님이 계시니까 저는 소리를 지를 수 없는데, 아이는 손님이 있든 없든 큰소리로 반항을 하니까 폭발 직전이었어요. 집에서 할머니가 케어를 할 수 없어서 데리고 왔는데, 눈앞에서 애들이 잘못하는 점이 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하다 보면 제가 지쳐서 ‘그냥 내일 해라’ 하게 되는 거예요.(4. 자영업)”

“아이들이 긴급돌봄에 가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을 되찾았어요. 점심만 해결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돌봄을 보내니 확실히 식비가 줄어들었어요 돌봄

만 가능하다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더라도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5. 프리랜서)”

● 사적 돌봄

사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이모님을 고용하는 맞벌이 가정이 있었다. 이모님이 아이들의 점심식사, 할 일 점검, 집안 일 등을 맡아 주어 맞벌이 가정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모님께 지불하는 비용에 부담이 크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저는 하루에 십만 원을 드려요. 하루 7~8시간 저희 집에 계시요. 제 입장에서 하루 십만 원은 많이 나가는 거지만, 이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받을 만큼 받으시는 거죠.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이모님이 계시서 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모님께 드리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1. 직장인)”

● 조부모 돌봄

조부모 상시 돌봄이 가능했던 맞벌이 가정 경우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문제가 나타났다. 조부모의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커진 것이다. 이 가정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부모가 격주로 오는 방법을 택했는데, 조부모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가정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조부모가 안 계실 때는 부모가 직장에 간 사이 아이들끼리 집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부모는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아이들을 챙겨야 했다.

● 아이들만 집에

고학년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직장에 간 사이 아이들만 집에 있는 경우가 있었다. 긴급돌봄을 보낼 수 있지만, 고학년 긴급돌봄은 저학년과 달리 돌봄을 위한 별도의 교실과 선생님이 없고, 담임선생님이 돌봄을 맡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모로선 부담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 저학년의 아이가 있더라도 형제 또는 자매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택하게 된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이들의 점심식사 해결이다. 엄마가 출근 전 도시락을 싸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주는 형태로 해결하고 있다. 엄마는 직장에 가더라도 아이들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의 양립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다.

“긴급돌봄 보내려고 해도 담임선생님이 보신다 하니 애들이 밍보일까봐 보내기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죠. 괜히 집에서 관리 안 되는 아이처럼 보일 것 같고 선생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혼자 나와 있으면 어찌지? 하는 것도 있으니 까... 그리고 고학년은 돌봄교실도 없어요. 컴퓨터실에서 쉬어서 있거든요..(1. 직장인)”

“점심식사가 가장 문제예요. 아이들이 몇 번 배달음식을 신나게 먹다가 이제는 질렸는지, 도시락을 해놓고 가길 원해요. 아침에 남편 도시락,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나면 회사에 갈 힘도 없어요. 식비는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들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 점심 도시락을 싸두고, 시시때때로 아이들 전화를 받아 내느라 일도, 집도 엉망인 상태가 지속되었어요.(3. 직장인)”

● 엄마 돌봄

면담 대상자 중 엄마가 프리랜서인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그만 둔 경우, 전업주부인 경우 모두 엄마가 아이 돌봄을 전담하였다.

사무실에 아이와 함께 출퇴근 하고 있는 프리랜서 엄마는 저학년의 아이를 안전하게 데리고 있다는 안정감은 있었다(두 미취학 동생은 어린이집 긴급보육에 맡김). 그러나 아이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낮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아이들을 재운 후 밤에 일을 더 해야 겨우 업무량을 맞출 수 있어서 엄마의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

두 아이를 키우며 프리랜서 기자로 일하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게 되자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엄마 역시 돌봄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 엄마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고 자신만의 일과 생활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스트레스가 컸고, 우울증까지 경험하였다.

“아이들 어렸을 때 일을 그만두고 육아만 해야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때만큼 우울했어요. 탈모까지 왔어요.(7. 프리/전업)”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 돌봄 뿐 아니라 가정 돌봄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 수익활동을 하지 않아 전업주부로 분류되었지만, 이 엄마도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일이 있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자 그 일은 중단되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

고, 가족들의 삼시세끼를 챙기는 것 뿐 아니라 아이들의 돌봄, 교육의 부담까지 커져 조금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가 어려워졌다.

“어른을 만나 어른들만의 대화를 하고 싶어요. 내 시간을 조금도 가질 수 없으니 너무 답답해요.(8. 프리/전업)”

● 이웃 돌봄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아이 돌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다 사용하게 되자 이웃과 돌봄 품앗이를 진행한 가정이 있었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 서로 도움이 되었지만, 서로 필요한 시기와 상황이 맞아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이 친구네는 월화(아빠 연차-3교대 근무), 수목(엄마 연차), 친정언니(주 2회) 등의 방법으로 아이를 돌봐줬대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연차도 딱 차면서 우리 아이는 돌봄 보내는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동안 불안해서 긴급돌봄에 못 보냈는데, 우리 아이도 보내면 용기를 내서 같이 보내려 했대요. 그래서 돌봄 품앗이를 하자고 했어요. 일주일씩(8:30am~5:30pm) 교대로 맡기로 하고 2주를 버텼어요. 그 이후에도 3일을 더 봐줬어요.(5. 프리랜서)”

● 아빠 돌봄

면담 대상 가정 중 엄마의 직업 형태와 무관하게 아빠가 아이들의 돌봄,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가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파괴된 것은 엄마와 아이들이었다. 이는 9가정 중 8가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가정만 예외였는데, 이 가정은 아빠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하였고, 엄마는 직장인이었다. 아이는 긴급돌봄교실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아이의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었다.

3) 요구

면담 대상자들에게 돌봄과 관련된 요구 사항들을 물어보았다.

● 긴급돌봄 상시 수요와 비상시 수요의 구분

가정에서는 갑자기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의 긴급돌봄은 대부분 4대 보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부모들 중 미리 신청한 경우에만 특정 기간 동안 상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의 상시, 비상시 수요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짜로 긴급돌봄이면 신청자를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아프시다든지), 그날만이라도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미리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고, 신청을 했더라도 조금 안 보내다가 보내려 하면 안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제 결국은 교사가 부족하다는 얘가지요. 상시와 비상시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1. 직장인)”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 공백을 (학교 외에 다른) 공공에서 채워주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아프데 낯선 아주머니에게 봐주라고 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 정부돌봄서비스에 전화했는데 당장 외출 수 없다 해서 엉엉 운적도 있어요.(2. 직장인)”

● 돌봄 교사 추가 확충

돌봄 교사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 고학년 긴급돌봄에서 별도의 돌봄 교사, 돌봄교실이 없는 것은 결국 돌봄 교사의 부족 때문이다.

“돌봄 교사가 충분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 밀집도를 낮추면서 돌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해야 하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돌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한 교사가 볼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아쉽죠.(1. 직장인)”

● 돌봄 교사의 권한 확대, 돌봄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 창구 마련

돌봄 교사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돌봄교실 운영 관련 권한이 없고, 학부모와의 교류가 부재하다. 돌봄 교사의 교실 운영 관련 권한 확대와 학

부모와의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

“돌봄 선생님의 위상이 애매한 것 같아요. 돌봄 선생님을 직원으로 볼 것이냐, 교사로 볼 것이냐 말이지요. 저도 불만사항이 있을 때 직원이라면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교사라면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돌봄 선생님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주는 책임이나 마찬가지지만, 담임교사처럼 피드백을 해주거나 부모와의 교류를 전혀 하지 않아요. 한 학기동안 면담을 한 번 하거나, 얼굴이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관계 형성이 전혀 없어요. 돌봄 선생님 입장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의 책임도 아니고... 사실상 권한도 없지요. 딱히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을 거예요.(2. 직장인)”

● 긴급돌봄 내 별도 프로그램 필요

학교마다 긴급돌봄 내 프로그램의 운영에 차이가 있었다. 미술 활동, 체육 활동 등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아이들이 즐겁게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긴급돌봄에 가는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매우 컸다. 단기간 집중 방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팬데믹이 장기화되는 경우 방역 때문에 아이들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긴급돌봄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면, 아이들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아이의 스트레스가 커요. 돌봄에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끼리 못 놀게 해요. 얼마 전엔 돌봄에서 몇몇 친구들끼리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자기들끼리 공간을 만들어 책 빌려주고 반납하기 놀이를 했대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기특해서 책도 기증해주고 했는데, 재밌어 보이니 애들이 몰린 거예요. 1미터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애들이 책 빌리겠다고 줄 서고 그러니 선생님들이 그 도서관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선생님도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걸 느껴요. 선생님도 확진자가 만약 발생하면 엄청난 데미지가 발생하니 스트레스가 클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2. 직장인)”

● 재택근무, 육아휴직 정책의 강제적 실행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 육아휴직을 권고하는 정책은 충분히 있지만, 실제 적용되지 않는 직장도 많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가정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정책을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제일 심각한 것은 돌봄인데, 나라에서 정책적으로는 이것저것 많이 해준다고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한 정부의 정책은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주변에 그러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는 휴직을 해줄 수 있게 하겠다.’ 라고 발표했지만,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해주겠다 했으면 진짜로 하게 해줘야지, 아니면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무조건 쉬라고 회사에 명령을 내리든지 해야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이 많은데 실제로 사용할 수 없어요. 육아휴직도 남자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쓰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1. 직장인)”

● 아이들 점심 도시락 제공

가정의 상황에 따라 온종일 아이들끼리 집에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이들의 점심식사 해결이다. 고학년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점심식사만 해결되면, 더 어린 동생이 있더라도 긴급돌봄 없이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학교 급식 관련 인력이 점심 도시락을 만들고, 필요한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긴급돌봄 수요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정부에서 초등학교에 ‘식재료 꾸러미’를 지급하였는데, 이보다 더 필요한 아이들에게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급식 식자재도 소비를 못 하고 있고, 기존의 급식 인력들도 일이 없어서 문제라던데 그 재료와 인력으로 도시락을 만들고 필요한 가정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타오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3. 직장인)”

“밥이 제일 문제예요. 우리 집의 경우 엄마가 퇴근한 후 저녁식사 준비시간을

줄이기 위해 컵밥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엄마가 늦어질 경우 아이들이 알아서 데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누가 집에서 가정식 해줘서 배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5. 프리랜서)

●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

학교에만 돌봄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 사회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긴급돌봄에 보내는 사람은 친절, 시댁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자기 돈을 들여서 돌봄 선생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의 아이들은 방치되고 있는 거죠. 돌봄 시설이 더 많아야 해요. 하지만 학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학교에 의무를 주는 게 아니라 학교 공간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5. 프리랜서)”

4_방과 후 교육 관련

1) 방과 후 교육 형태 변화

코로나19 이전에는 면담 대상 가정 모두 영어, 피아노, 미술, 체육 등에 대해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고, 9가정 중 6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 후 수업에 다녔다.

[표 3-6] 면담 대상자들의 기간별 방과 후 교육 형태 변화

면담대상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교개학 이후~
1	직장인	사교육	영어/피아노/미술 방문 학습	영어(온라인) 방문 학습	영어/피아노 방문 학습
2	직장인	사교육	체조/피아노 생활체육	-	-
		공교육	방과 후 수업 (다수)	-	-
3	직장인	사교육	영어/피아노/미술/ 방문-바이올린/ 스마트 학습	영어(온라인) 스마트 학습	영어(온라인) 스마트 학습
4	자영업	사교육	영어/발레/ 방문논술/ 사립합창단	영어(온라인) 스마트 학습	영어(온라인)/발 레/방문논술/사 립합창 스마트 학습
5	프리랜서	사교육	피아노/태권도/ 방문 학습	방문 학습	피아노 방문 학습 스마트 학습
		공교육	방과 후 수업 (1개/주)	-	-
6	프리랜서	사교육	-	-	피아노
		공교육	방과 후 수업 (10개/주)	-	-
7	프리 > 전업주부	사교육	피아노/방문 학습	-	피아노/방문 학습/양궁
		공교육	방과 후 수업 주민센터	-	-

면담대상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교개학 이후~
8	프리 > 전업주부	사교육	태권도/코딩	코딩(온라인)	코딩 방문 학습 스마트 학습
		공교육	방과 후 수업 (2개/주)	-	-
9	전업주부	사교육	미술	-	-
		공교육	방과 후 수업 (1개/주)	-	-

코로나19 직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학원 운영이 중단되면서 사교육이 대부분 중단되었고, 공교육인 방과 후 수업은 전면 중단되었다. 다만 온라인으로 가능한 영어, 스마트 학습(아이스크림 홈런, 밀크티 등)과 방문 학습(구몬수학 등)은 계속 유지되었다.

그러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9가정 중 7가정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이용하던 사교육 중 일부를 재개하였다. 개별 연습실 이용이 가능한 피아노 학원, 소수 그룹 수업, 방문 수업 등에 대한 선호가 상승하였으며, 개별 방역이 어려운 미술 학원, 태권도 학원 등은 기피되었다. 또한 스마트 학습기를 이용한 학습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호되었다.

“피아노는 독방에서 연습하고, 애들 한명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이 피아노를 닦으시더라고요. 이론 수업도 칸막이를 다 해놓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미술은 여러 명이 가까이에서 모여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술은 지금도 안 보내요. (1. 직장인)”

2) 어려움

● 돌봄 기능을 갖는 방과 후 교육이 사라짐

코로나19가 시작된 후 돌봄 기능을 갖는 방과 후 교육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동안 학교의 방과 후 수업, 학원 등을 포함한 방과 후 교육은 일종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학교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돌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되면서 부모들은 학원에 보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갈등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하교-학원으로 나의 업무 시간에 맞췄었어요. 제가 퇴근하는 시간까지 뽀뽀이를 도는 셈이어서 사실 학원은 일종의 돌봄과 같은 거였어요. 영어, 피아노, 미술 등을 학원으로, 바이올린은 가정방문으로 하고 있었는데, 모두 중단되었어요. 코로나19 발발 즉시.(3. 직장인)

● 학습 격차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교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코로나19 상황 중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의 부진으로 학습 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결국 부모들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원, 방문 수업 등 사교육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도 큰애 수학이 걱정이었어요. 학원을 다시 보내야 하나.. 걱정이었어요. 1학기는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지, 집에서 있는 엄마가 아니라 학습적인 케어에 공백이 생기니 아이만 믿고 있기가 불안한 거죠. 엄마가 옆에서 신경써주고 하는 것과는 다르니까 큰 아이가 좀 걱정되더라고요.(4. 자영업)”

●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

가정마다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도 한다. 주변에는 학원에 많이 보내는 가정들이 많은데, 오히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 섞이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친한 친구들은 모두 학원에 복귀한 상태예요. 특히 큰애는 5학년이다 보니, 친구들이 수학, 영어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등교 이후에 수학학원 테스트를 봤다가 여의도 학원가에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그것도 바로 생각을 접었어요.

등교 이후에 여의도 학원가, 관악구 영어학원 발 등 여러 번의 확진자가 주변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전염이 안 되어서인지, 엄마들은 오히려 학원에 더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영어학원은 은근히 나에게 학원 아이들의 80%가 복귀했다고 전해오는데, 학습의 뒤처짐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요.(3. 직장인)

“아이는 다른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니까 너무 가고 싶어 해요. 얼마 전 OO 초등학교 근처 학원들(3곳)에서 한 어린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전염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보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2. 직장인)”

● 공교육인 방과 후 수업 전면 폐강

학교에서 제공하던 방과 후 수업이 전면 폐강되었다. 방과 후 수업은 사교육에 비해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였지만, 코로나19 발발 직후부터 전면 폐강되었다. 방과 후 수업을 대체하기 위한 사교육 비용은 훨씬 높다. 예컨대 학교의 방과 후 영어 수업은 한 달에 3-4만원 수준이지만, 영어학원은 30-40만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방과 후 수업을 선호했던 가정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없어 학습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저는 방과 후 수업에 굉장히 의지하던 사람이었는데 방과 후 수업이 없어지니 힘들어요. 학교를 벗어나지 않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있구요.(6. 프리랜서)”

“우리 아이는 방과 후 수업이 인생의 낙이었는데 수업이 없어져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가기 힘들어해요. 아이가 ‘엄마 나는 아홉 살 인생이 너무 버거워. 코로나가 날 너무 힘들게 해’라고 말해요.(2. 직장인)”

“원래 계획으로는 이번 학기부터 방과 후 영어 수업에 보내려고 했었어요. 아이에게 영어 사교육을 전혀 안했던 터라 3학년부터 매일 한 시간씩 영어 수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학원비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에 원어면 선생님과 수업을 할 수 있고, 매일 규칙적으로 영어를 써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생각했어요. 그걸 못하게 된 게 제일 아쉬워요.(8. 프리/전업)”

● 소규모 방문 수업, 스마트 학습으로 인한 비용 증가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자 학습 부진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규모의 방문 수업, 스마트 학습 수업 등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였다.

“저는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선호하고 사교육을 기피하던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 기간이 계속되다보니 아이가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불안해지더라고요. 엄마가 붙잡고 가르치려니 계속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구몬학습과 스마트 학습(와이즈캠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3학년이 되면 학교 방과 후 영어도 꼭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어 불안하더라고요.(8. 프리/전업)”

“방문교사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 초기에는 주춤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방문 학습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의 학력격차가 커졌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좋아했었는데, 그것도 중단되니 사교육이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지금은 소규모 방문 수업 위주로 하니 얼마나 비싸졌어요. 돈이 더 드는 것 같아요.(7. 프리/전업)”

3) 요구

방과 후 교육 관련된 면담 대상자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방역 수준 단계별 등교일 확대 필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교육, 학원은 운영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하루 종일 돌봄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학교의 충분한 공간 대신 좁은 학원으로 모이는 결과로 이어져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학교를 무작정 닫아놓기만 해서 과연 아이들이 집에만 있을 것인가? 사실 학교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서 닫은 것인데...(7. 프리/전업)”

“어린이집은 100% 복귀했어요. 학원도 다 열었지요. 초등학생만 학교에 못 가

게 돼서 안 좋은 것 같아요.(2. 직장인)”

“등교일을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습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학년 이야 아직 괜찮고, 고학년들이 문제죠. 잘하는 아이들이야 집에서도 잘 하겠지만, 안 그런 아이들은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4. 자영업)”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학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볼 일인 것 같아요. 학교는 학원보다 더욱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지 않나요. 사적인 부분에서 학교의 기능을 하나씩 대체해 나가는 동안 이전엔 학교에서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되었던 돌봄, 방과 후 수업, 점심 등의 가정 내 부담을 넘어 전혀 제공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3. 직장인)”

● 학교의 방과 후 수업 재개

코로나19 이후 사교육은 자체적인 방역 관리 속에서 소규모, 방문 수업 등의 형태로 변화되어 진행되었다. 공교육의 방과 후 수업 폐쇄와 대비되는 사교육의 적극적인 대응 때문에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정 부분 방과 후 수업의 재개가 필요하다. 2차 확산이 있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을 때에도 공교육은 모두 닫았지만, 사교육은 온라인 강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수업 등을 이용해 계속되었다. 공교육에서도 방과 후 영어 수업과 같이 화상 강의를 가능한 수업을 우선 진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수업 정원을 소규모로 나누는 등 수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방과 후 학교도 소수만 받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학원도 다 보내니까요.(7. 프리/전업)”

5_사회적 교류 관련

1) 사회적 교류 형태 변화

● 교류 범위 축소

대부분 가정 아이들의 사회적 교류 범위가 축소되었다. 학교를 자주 가지 못하니 새 학년 친구들과 친해지기 힘들어졌고, 친구들 얼굴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나고 싶은 친한 친구도 만나지 못해 친구 관계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부모들은 집집마다 코로나19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친구와 놀도록 허락하는 것이 꺼려지게 되었다. 자기 아이가 여러 군데 학원을 다니는 친구와 노는 것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아이들끼리 만나는 건 좀 꺼끄러워요. 부모를 동반해서 같이 만나는 경우는 그나마 안심이지만... 큰애는 밖에서 몇 번 친구를 만나고 오기도 하는데, 친한 친구가 학원을 여럿 다니고 있는 터라 좀 많이 불안했어요. 만나면 마스크를 벗고 군것질을 하고 밀접접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3. 직장인)”

“한 달 전부터 동네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자! 하면 조심스러워요. 어떤 친구가 집에 놀러오라고 세 명을 초대했는데, 한 명은 엄마가 안 보냈고, 한 명은 놀이터에서 노는 것만 허락했고, 우리 아이만 그 집에 가서 파자마 파티를 했어요.(2. 직장인)”

● 부모 친분 중심의 밀접한 교류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의 친분 관계 중심으로 이전보다 밀접한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서로 가정의 상황과 방역 민감도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다 같이 걸린다는 생각으로 엄마끼리 친한 몇 집과는 거리두기 수준과 무관하게 왕래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가까운 지역 내 친분 있는 가정이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지금은 주로 친한 엄마 아이들하고 놀아요. 집에서만 놀면 힘드니까 아파트

놀이터(공터) 가서 놀거나, 근처 중학교 운동장 가서 놀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이 친구들은 만났어요. 정말 심했던 3월 초에만 조심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만났어요. 그 친구들은 그냥 가족처럼, 누구 하나 코로나에 걸리면 다 같이 걸리는 거다 생각했어요.(1. 직장인)”

● 긴급돌봄교실 내 끈끈한 교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자유놀이가 허락된 긴급돌봄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매일 정해진 친구들끼리 낮 시간 대부분을 함께 보내며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한 관계가 만들어졌다.

“둘째는 긴급돌봄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한반에 10-12명 정도라고 예요. 외부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도 해주시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블록도 갖고 놀고, 만들기도 하고 해서 엄청 재밌어 해요. 집에 안 올려고 해요. 같은 반 아이들이 아니라, 돌봄에 신청한 순서대로 돌봄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4. 자영업)”

● 온라인 교류 확대

온라인 수업 등으로 아이들의 스마트 기기 활용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온라인 교류가 늘어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은 zoom 화상회의, 카카오톡 영상통화 등의 도구 활용에 익숙해졌다. 그동안 온라인 교류는 하지 않던 초등학생 아이들도 코로나19 이후 친구들 간 교류에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일부 아이들의 경우 게임 속 공간에서 친구와 만나기도 하였다.

“우리 아이는 아직 3학년이라 스마트폰도 없고, 코로나 이전에는 친구들과 카카오톡을 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노트북을 쓰게 되니 친구들과 zoom으로 화상 통화를 하더라고요. 친구 2-3명이 화상으로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오늘 무슨 숙제 있는지 얘기하고요. 카카오톡도 컴퓨터에 깔아줬어요. 1-2학년 때 친했던 친구들과 얘기하고 싶어 해서요. 그렇게라도 친구들과 소통하는 게 필요해서 생각해서 놔두고 있어요.(8. 프리/전업)”

● 1인 운동 위주의 놀이

밖에서 노는 아이들은 주로 동네 놀이터, 인근 공터, 학교 운동장 등에서 자전거, 인라인, 보드 같은 1인 운동 위주의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같이 놀되 서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동네 놀이터의 밀도가 높을 경우 밖에서 노는 것을 포기하고 집에서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아파트에는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놀이터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점은 인라인, 보드, 자전거 같은 1인 운동을 많이 해요. 같이 놀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한 바퀴 돈다거나 하는 식으로 놀아요. 재난지원금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집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놀았다면, 이제는 놀이터나 공원에서 많이 노는 것 같아요.(7. 프리/전업)”

“아파트에서 놀이터를 보고 있다가 다른 애들이 없으면 애들 데리고 나갔다 오긴 해요. 놀다가 다른 애들이 오면 집으로 돌아오고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애들은 마스크 쓰고 나가더라도 애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놀더라고요.(6. 프리랜서)”

● 가족 상황에 따라 사회적 교류의 횟수가 달라짐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이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사회적 교류의 횟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친분이 있는 가족이 근처에 있는 경우, 또는 자유놀이가 가능한 긴급 돌봄교실에 가는 아이들의 경우 오히려 교류 횟수가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전보다 학교, 학원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어 같이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기존에 친하게 지내던 가정과 더 밀접해졌어요. 코로나19 시작부터 마스크 안 쓰고 만나는 사이죠. 공동체 수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끈끈해졌어요. 일주일에 4일은 같이 놀아요.(5. 프리랜서)”

2) 어려움

면담자 가정에서 사회적 교류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 학교 친구, 선생님과 교류 수단 부족

학교는 친구, 선생님과 교류를 통해 사회성을 배워갈 수 있는 작은 사회이나, 현재는 같은 반 아이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어 아이들의 외출이 불가한 경우 아이들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의 온라인 수업은 e-학습터에 올려진 영상으로 보고 과제를 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선생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학교에 등교할 경우에도 방역 때문에 아이들의 행동에 제한이 있어 교류가 어렵다.

● 오픈 스페이스 부족

팬데믹 상황인 현재, 아이들의 교류는 자전거, 인라인 타기 등 상호간 일정 거리 확보가 가능한 놀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오픈 스페이스가 매우 부족하다. 동네 놀이터가 있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하기에는 장소가 무척 협소하다. 동네마다 있는 학교 운동장이 좋은 대안이나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학교 운동장이 늘 폐쇄된 지역들이 있어 이용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많다.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싶는데 집 앞에 있는 중학교 운동장이 어느 순간 문을 닫았어요. 그나마 아이들이 가서 산책하는 장소였는데 말이에요.(3. 직장인)”

“동네에서 많이 돌아다녀요. 간단한 물건을 사거나 카페에 들르는 정도만요. 산책할 곳, 잠깐 나가 있을 곳이 정말 없어요.(8. 프리/전업)”

3) 요구

사회적 교류 확대를 위한 먼답자들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상 수업 확대 등 사회적 교류 수단 확보 필요

온라인 수업이 선생님이 올린 영상을 보는 일방향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실시간 화상 수업은 학습 관리뿐 아니라 아이들의 소통,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실제 화상 수업을 하는 일부 아이들의 경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최근 학교에 화상 수업이 생겼어요. 거리두기 강화와 상관없이 친구들, 선생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이가 온라인 수업보다 훨씬 활기차고 신나해요. 즐겁대요.(6. 프리랜서)”

● 오픈 스페이스 확보 필요

장기간 학교에 못 가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는 도보로 접근 가능한 오픈 스페이스 확보가 필요하다. 커뮤니티마다 확보된 공간인 학교 운동장을 무작정 닫아 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면담 대상자 중 학교 운동장 이용이 가능한 지역 거주민의 경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물론 방역을 위해 적절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6_가족 일상 및 구성원 부담 관련

1) 가족 일상 및 구성원 부담 변화

코로나19는 이전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여가문화, 외식 등 외형적인 부분뿐 아니라 이웃 간의 교류나 친목을 유지하는 범위 또한 매우 축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축근무, 재택, 등교 축소는 가족 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장기화가 될수록 이로 인한 가족 간 피로도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7]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일상의 변화

구분	주요 내용
여가 문화	○ 대부분 동네 공원 혹은 한강공원 등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휴식 ○ 운동장이 개방된 학교, 근린공원, 놀이터 등의 이용도 증가 ○ 단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위주로 여가 활동 ○ 단계 완화 시, 지역 여행 계획 및 호텔 등 다중이용 숙박시설 이용
소비, 쇼핑	○ 3~5월에는 온라인으로만 쇼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역(동네) 중심으로 이용 ○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이용하는 가정은 거의 없음.
외식	○ 배달음식 위주 / 아이들끼리 집에 있는 경우 점심식사로 배달음식 활용
이웃 간 교류	○ 교류하는 이웃의 범위가 매우 축소되고 있음. ○ 자녀보다는 어른들의 친밀도가 높은 가정을 중심으로 높은 친밀도 유지됨. ○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친분도 부모의 친분에 따라 축소되어 형성됨.
가정 내 분위기	○ 이른 퇴근 혹은 재택으로 인해 가족 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

*출처: 개별 인터뷰 내용 종합

[표 3-7]은 가족 내 일상의 변화를 항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여가·문화생활에서는 대부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집에만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뿐만 아니라 3월 한 달간 집 앞 마트에도 나가지 않을 정도로 집에서만 머무르는 가정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날씨가 좋아지고, 학교의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지역 내 공원을 중심으로 외부활동이 생겨나게 되었고 평일에도 인근 공원이나 놀이터를 중심으로 친밀도가 높은 가정 간에 만나서 잠깐씩 교류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고 오랜 거리두기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 밀집도가 낮은 지역 및 시설을 중심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등 그 동안 누리지 못한 여가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생활 및 외식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과 배달음식으로 빠르게 대체되었다. 다만 식료

품 구매 시 발생하는 포장재와 음식 배달 시 발생하는 포장재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온라인 쇼핑과 음식배달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이웃 간의 교류에서는 관계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학교, 학원, 이웃 등의 친구를 놀이터에서 만나거나 친구 집에 들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이런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부모들 간의 친밀도가 있는 이웃 위주로 관계가 좁아짐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유는 아이들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 따로 만나야 하는데 가정 간 방문이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미안하지 않은) 관계로 한정지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들 간의 친밀도가 높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근무 형태의 변화 및 등교일 축소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가정 내 분위기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초반에는 가족 간 친밀도가 높아지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장기화함에 따라 재택근무로 인한 가사 노동 증가(식사 준비), 자녀의 학습 및 생활 관리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려움

가정 내 구성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인터뷰한 결과, 주 양육자의 우울감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맞벌이 가구의 주 양육자에 비해 전업주부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는 주 양육자가 느끼는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일을 병행하는 주 양육자는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상대와의 대화를 통해서 관련 스트레스가 크게 해소되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업인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와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를 할 기회가 없으며 이로 인해 우울감이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응답자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안녕하세요! 전 이 인터뷰 때문에 통화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동안 애들이랑 집에만 있다가 어른이랑 얘기하니깐. 살 것 같아요!(7. 프리/전업)”

반면 보조양육자는 대부분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가정 내 부담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한 역할을 문제보다는 사회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돌봄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돌봄 부담으로 인해 주 양육자의 고용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고용의 변화를 통해 주 양육자가 겪는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돌봄 및 가정 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돌봄 정책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재난적 상황에서 돌봄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구성원 모두가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3-8] 자녀 주 양육자의 어려움

구분	주요 내용
일을 하는 주 양육자	○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 학습관리 등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됨. ○ 긴급돌봄, 학원 등에 대해 정보를 탐색하고 신청하는 등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느낌임. ○ 다만 일과 중 업무를 통해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고 유사한 환경에 있는 주 양육자와 대화하면서 심적인 위로를 크게 얻고 있음.
전업주부	○ 대부분 자녀들과 집안에서 온종일 생활하고 있으며 산책 등 간단한 외부활동을 하기도 함. ○ 자녀의 학습관리, 식사, 생활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재택근무하는 가족의 식사도 전담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 가사 노동이 급증함. ○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고 어른들 간의 대화 부족(공감대상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고 있어 우울감이 심해짐. ○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하나 막막하고 더욱 우울해짐.
보조 양육자	○ 대부분의 남성(아버지)들이 보조 돌봄자로서 코로나19 전후로 인한 가정 내 역할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아이들의 심리적 우울감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 간의 교류의 부족에서 오는 우울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의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지만, 면담자들이 언급하는 부분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처음엔 집에 있는 게 좋았는데, 이제 너무 심심하고 지루해요. 학교에 가고 싶어요.(면담자의 자녀)”

“학교에 가도 친구들이랑 대화하기가 어렵지만, 친구들과 같이 있다는 것만으

로도 재밌어요.(면담자의 자녀)”

“아이가 이전과 다르게 너무 다운되어 있어서 단순히 심심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놀아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엄마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줄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결국엔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고 놀이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3. 직장인)”

“얼마 전 화상으로 개학식을 진행했어요. 전교생을 둘로 나눠서 진행했는데 그래도 많았죠. 교장선생님 말씀에도 아이들끼리 난장판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번학기 들어 켈 재밌었대요. 이런 화상 수업이나 진행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6. 프리랜서)”

아이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다양성이 온라인 학습과 제약이 많은 학교생활에서 위축되고 흥미를 잃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화상 수업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온라인 수업 포함)을 통한 교제시간 증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줄 필요가 있다.

3) 요구

● 주 양육자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 시급

지금까지 우리의 정책은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클 것으로 보고 이들을 위한 긴급돌봄 등을 지원하는 등 우선 정책 대상으로 보고 지원해 왔다. 그러나 면담 결과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을 하는 주 양육자에 비해 전업주부의 우울감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긴급돌봄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서도 잠깐의 돌봄을 이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또 돌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하기 어렵다는 데에는 가정주부는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여 주 양육자 스스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면담자 중에는 심한 우울감으로 인해 전화상담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기 순서가 길어 즉각적인 상담을 받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코로나 블루 상담센터의 확충과 더불어 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가 학교 알리미 등을 통해 전달되어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 짧은 교류 및 간단한 신체활동을 위한 장소 확보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 공공시설의 운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공공시설이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더라도 간단한 산책이나 잠깐의 신체활동을 위해서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예로, 아이들이 걷거나 뛰는 운동을 위해 동네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 왔는데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학교 운동장이 폐쇄되어 오히려 좁은 놀이터에 아이들이 밀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교류하고 싶어하는데 카페나 집은 밀폐되어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넓은 공간에서 서로 조심하면서 만나고 싶기는 한데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3. 직장인)”

“구민센터, 체육시설, 학교운동장은 전부 닫았어요, 지역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데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오히려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모이거나 길거리에서 노는 것 같아요(7. 프리/전업).”

무조건 이용을 제한하는 것보다 학교 운동장 등은 예약제 혹은 인원제 제한을 두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민들을 위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집안에만 있는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더 절실하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역의 공공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짧은 실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7_소결

지금까지 면담 결과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가정이 겪은 변화, 이로 인한 어려움과 요구들을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 관련

온라인 수업의 불안정한 시스템과 부실한 내용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또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아이의 학습관리에 대한 부담이 오롯이 주 양육자에게 전가됨에 따라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학습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면담자들은 온라인 수업을 위한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가 체계적으로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실시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고, 등교 수업 방식을 평가 위주에서 체험 위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궁극적으로는 등교 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학교를 소그룹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 돌봄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 돌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긴급돌봄, 사적 돌봄, 조부모 돌봄, 이웃 돌봄, 엄마 돌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임시방편일 뿐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어려움이 커지고 있었다. 면담자들은 ‘긴급돌봄의 상시 수요와 비상시 수요 구분’, ‘돌봄 교사 추가 확충 및 돌봄 교사의 권한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필요시 누구나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재택근무,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가 아닌 강제적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한편 고학년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아이들의 점심 도시락만 제공된다면,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집에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방과 후 교육 관련

그동안 학원(사교육)과 방과 후 수업(공교육)은 일종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코로나19 이후 사교육은 재빠르게 온라인 수업 등의 방식으로 전환되거나 기존 수업 방식을

유지하였지만, 공교육의 방과 후 수업은 전면 폐지되었다. 방과 후 수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가정에 큰 도움이 되어왔지만, 3월 이후 거의 모든 학교에서 폐지되었다. 반면 학교의 부실한 온라인 수업 때문에 학습 격차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여 오히려 사교육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넓은 학교를 못가는 아이들이 좁은 학원에 몰리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면담 대상자들은 학교 등교일을 확대하고, 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소수 그룹으로,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구성해 재개할 것을 요구하였다.

● 사회적 교류 관련

아이들에게 학교는 사회적 교류의 장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학교에 못 가게 되자 아이들의 사회적 교류의 범위는 축소되었다. 가족의 상황에 따라 더 끈끈한 사회적 교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교류의 범위도, 횟수도 줄어들었다. 야외활동도 자전거, 보드 등 1인 운동 위주로 변화하였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학교 친구, 선생님과 교류 수단은 부재하고, 동네에는 야외활동을 위한 오픈 스페이스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화상 수업 등 아이들의 사회적 교류를 위한 수단 확보, 바깥 놀이를 위한 충분한 오픈 스페이스 확보 등이 요구되었다.

● 가족 일상 및 구성원 부담 관련

코로나19는 가족의 일상을 크게 변화시켰고, 가족 구성원에게, 특히 주 양육자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 돌봄 등의 부담이 주 양육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주 양육자의 스트레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외부활동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다른 구성원들에 비해 우울감이 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의 교류가 없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을 나타내었다. 면담자들은 주 양육자, 특히 전업주부의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역민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내에서 타인과 짧게나마 교류를 할 수 있고, 간단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권 내 충분한 야외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04. 정책 제언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은 일상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등교 중지 조치는 초등학교가 담당해 왔던 교육, 돌봄을 넘어 그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회적 교류 등 광범위한 기능의 중단을 가지고 왔다. 초등학생을 둔 가정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화되었던 기능들은 위기상황에서 급격히 가정으로 회귀되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정부는 빠르게 고민하며 해결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그 결과 우리가 제안하려는 정책적 대안들이 이미 도입되었거나 혹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이미 정책화되었거나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의성이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의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장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적응하기 위한 단기적 대안과 향후 다시 도래할 수 있는 팬데믹 상황을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1_단기적 대안

1) 학교: 체계화된 쌍방향 수업과 소통의 필요

단기적 대안 중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양방향(소통 가능한) 수업이다. 물론, 원격수업(온라인 강좌)의 질적 향상과 균질한 보급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선행될 조건이다. 강대중 외(2020)는 등교의 중단으로 인해 보편적 학습 환경이 사라졌고 부모의 영향력이나 가정의 관리에 의해 아이의 학습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원격수업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아이들의 학습관리 및 생활태도 관리와 더불어 소통이 필요하다. 등교 수업이 어려워지더라도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

능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등교와 같이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에 접속함으로써 생활의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초등학생은 선생님의 관심이나 칭찬이 생활태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 가정 내에서 생활태도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더불어 등교 수업에서는 친구들과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을 인지하거나 친구들 간의 교류가 어려운데, 화상 수업이나 그룹 소통을 통해서만 친구 간 친밀도를 더욱 높여줄 수 있다. 이를 통해 학교에 대한 흥미나 우울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도 그룹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영상으로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아이의 학교에 대한 흥미도나 친구들 간의 친밀도가 이전보다 높아짐을 그룹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쌍방향 수업은 학교의 재량 혹은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고 있었다. 쌍방향 수업이 아니라 아침 조례나 간단한 인사 정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화상 조회시간에 맞춰 생활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 생활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교육부는 ‘e-학습터’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2월말 공식 개통할 계획을 밝혔다(연합뉴스, 2020.12.06.).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학교나 학급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구체화된 매뉴얼을 갖고 체계적인 쌍방향 수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은 학교나 저밀학급 등에서 쌍방향 수업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과밀학급에서는 이러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습 격차 및 학교 흥미도 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았기 때문이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방과 후 수업과 같이 공공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거나 쌍방향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사교육에서는 온라인 수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공공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중단되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수업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공공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가정에서는 오히려 사교육으로 내몰리거나 학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 수업, 교류, 방과 후 수업 등과 더불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은 온라인(쌍방향 수업)으로 전환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미 학교 수업 및 영어 수업(방과 후) 등 일부 쌍방향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짧게 혹은 매우 제한적인 일부 수업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다. 향후 아이들의 그룹 활동이나 학교 활동(개학식, 미술대회 등) 등에서 쌍방향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대학교 유현준 교수는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의 기능과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학교는 더 이상 교실에서 선생님의 일방향 지식 전달 장소일 필요가 없다. 지식을 전달받는 것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을 소규모로 모아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면 된다.(조선일보 유현준의 도시이야기, 2020.08.14.)”

학교는 학습과 더불어 학교와 학생, 학생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대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지역(동네)에서의 교류 장소 필요

팬데믹 상황은 친구 집을 방문하거나 놀이터에서 모여 뛰어노는 아이들의 일상도 사라지게 했다. 그러나 오랜 거리두기로 인해 아이들은 산책 등의 바깥 활동이 필요했고, 친구들 간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놀 수 있는 방법(자전거 타기 등)을 찾아냈다. 그러나 주거 밀집지역 등 충분한 외부공간이 없는 경우 충분한 공간을 두고 소통할 수 있는 외부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표 4-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거가 밀집한 지역에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유일한 오픈 공간은 학교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학교운동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하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개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적절한 밀도가 유지 가능한 인원만 수용하여 산책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밀접 접촉이 있는 구기종목 제외 등의 상세 지침은 필요하다).

[표 4-1] 주택 밀집지역의 학교 운동장 활용방안 예시

지역(마을) 내 공공공간 부족	대안) 학교 공간 활용
주택 밀집지역에서는 학교가 가장 넓은 공공공간이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학교 운동장을 공원화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조성 (사례: 세종시 학교 공모전 작품)
	

* 출처: 이미지(좌): 네이버 지도(서울시 관악구)

이미지(우): 세종포스트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1>

이러한 오픈 공간의 확보는 폐쇄된 공간에 함께 하기 어려운 밀접한 교류를 느슨하게나마 이어줄 수 있다. 보호자 역시 이러한 느슨한 교류를 통해 소통하면서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 내 학교를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원화하여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공공부문(도서관, 구민센터 등)의 온라인 운영 활성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과 후 수업, 공공 체육센터 및 공공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까지 아예 중단되었거나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점에서 일부 재개되었다가 다시 대부분 중단되었다(2020년 12월 기준).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학원’도 3주간 전면 등원이 중단되었으나, 생활체육 및 악기 등과 관련된 학원을 제외한 학습을 위한 학원은 대부분 화상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수업은 유지되고 있다. 이미 3월과 8월의 중단 상황을 통해 사교육은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적 교육 기능이 사적인 영역으로 더욱 의존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공교육 프로그램 위주로 이용해 왔던 주 이용자들에게 있어 학습 격차에 대한 우려,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러한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공적 영역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들도 있어왔다. 사례로 방학 내 화상 수업을 통해 학년 별 특화 프로그램(독서, 역사 등)을 운영하거나, 체육 프로그램 수업 온라인 송출 및 영어 프로그램의 온라인 수업 진행 등이 그것이다. 이미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기기나 사용법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완화되었다. 공공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수 있다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교육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지역기관의 역량이나 상황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장기화에 따른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및 교육 격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시설별 대응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4-2] 공공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프로그램	관련 이미지	주요 내용																		
학교 방학 프로그램	1. 명문학교 캠프 운영 가. 대상: 1~6학년 희망자 (4여름방학 동봉교실에서는 명문학교 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후 프로그램은 운영하므로 동봉교실 참가학생은 명문학교 캠프 신청이 불가능하다. 참고사항: 1회) 나. 운영기간: 2020. 8. 31(월) ~ 2020. 8. 14(금) (2주간, 총 10일 운영) 다. 운영시간: 09:00 ~ 12:10 라. 운영방법: 화상 참여 프로그램 200명을 활용한 명문학교 캠프 마. 장소: 참여 사전 준비사항 - 개인 휴대용 PC, 데스크탑 PC, 노트북 등 1가지 준비 - 데스크탑 및 노트북은 화상이 가능한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 200M 초고속망 설치 - 200M 초고속망 설치 및 인터넷 속도 테스트를 위한 속도 테스트 프로그램 설치 - 200M 초고속망 설치 및 인터넷 속도 테스트를 위한 속도 테스트 프로그램 설치 바. 운영장소: 장미도서관(1~2학년), 역사이야기(3~4학년), 영어(5~6학년) 사. 수강료: 무료(입학 비료 포함) 아. 운영일: 장미도서관 (1번, 2번의 교육내용은 동일함) 1) 1,2학년: 영어독서 (1번, 2번의 교육내용은 동일함) 가) 시간표 <table border="1"> <thead> <tr> <th>회차</th><th>운영 일시</th><th>수강 인원</th></tr> </thead> <tbody> <tr> <td>1번</td><td>월·화·목·금 09:00~10:00</td><td>25명 내외</td></tr> <tr> <td>2번</td><td>월·화·목·금 10:30~11:30</td><td>25명 내외</td></tr> </tbody> </table> 나) 내용: 다양한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기, 민화 그리기, 주제 글쓰기 등 독서활동 2) 3,4학년: 역사이야기 (1번, 2번의 교육내용은 동일함) 가) 시간표 <table border="1"> <thead> <tr> <th>회차</th><th>운영 일시</th><th>수강 인원</th></tr> </thead> <tbody> <tr> <td>1번</td><td>월·화·목·금 09:00~10:00</td><td>25명 내외</td></tr> <tr> <td>2번</td><td>월·화·목·금 10:30~11:30</td><td>25명 내외</td></tr> </tbody> </table> 나) 내용: 국사, 지리 등 역사 속 장소 및 인물이 대하 흥미를 유발하는 활동	회차	운영 일시	수강 인원	1번	월·화·목·금 09:00~10:00	25명 내외	2번	월·화·목·금 10:30~11:30	25명 내외	회차	운영 일시	수강 인원	1번	월·화·목·금 09:00~10:00	25명 내외	2번	월·화·목·금 10:30~11:30	25명 내외	○ 여름방학 기간 중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 ○ 1~2학년은 독서프로그램을 각 25명씩 2학급을 운영함. ○ 3~4학년은 역사이야기로 25명씩 2학급을 운영함.
회차	운영 일시	수강 인원																		
1번	월·화·목·금 09:00~10:00	25명 내외																		
2번	월·화·목·금 10:30~11:30	25명 내외																		
회차	운영 일시	수강 인원																		
1번	월·화·목·금 09:00~10:00	25명 내외																		
2번	월·화·목·금 10:30~11:30	25명 내외																		
체육 프로그램		○ 성동구, 체육센터 프로그램 ○ 동영상 '홈트레이닝·홈스쿨' 운영 화면																		
영어 프로그램		○ 의정부시, 거점영어센터 온라인 수업으로 방과 후 수업, 영어 캠프 등 진행																		

출처: 이미지(상), 서울00초등학교 학교 알리미 캡처 화면(개별 면담자 제공)
 이미지(중), 아시아경제 2020.04.06., '성동구, 체육센터 프로그램 동영상 '홈레이닝·홈쿨' 운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0606582162681>
 이미지(하), 경기북부탐뉴스, 2020.05.18., '의정부시 거점영어체험센터, 원어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수업 진행' http://www.gbtopnews.net/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7782

4) 심리적 지원 필요

가정 내 주 양육자들은 돌봄 및 학습 관리 등 학교 기능 축소로 인한 가정 내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는 주 양육자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감의 증가를 가져왔다. 직장인 혹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주 양육자의 경우, 돌봄, 학습관리와 일을 병행하는 육체적 힘들어 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긴급돌봄이라는 지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면담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 대상으로 우선 고려되고 있고 이들은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업 혹은 고용의 변화로 인해 전업이 된 주 양육자들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안정감이 있기는 하나 신체적, 심리적 부담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 혹은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으로 인해 가정 내 역할 증대로 인한 우울감을 크게 호소하고 있었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 내 긴급돌봄 지원과 같이 전업주부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체계와 우울감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주변과의 소통, 휴식을 통해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에서 피로도가 높아지고,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어른들 간의 공감과 소통이 단절된 것에 대한 감정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지역 내 소통과 교류를 위한 외부공간을 확보하고, 긴급 시 돌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외부공간에서 교류하기 쉽지 않으므로 지역 커뮤니티 앱 등을 통해 소통을 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확보하는 것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휴식과 소통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면담자 중에는 탈모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거나 심리상담을 위해 전화상담을 요청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기로 인해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는 경험을 토로하였다. 현재 정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음프로그램 앱(App) 개

발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 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 중에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통해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 뉴스를 판별하여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확진자 및 확진자 가족, 의료진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신건강 유지를 위해 상담지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화의 대기가 길어지고, 치료보다는 상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업 주부의 경우에는 온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대응(직접 상담, 치료 등)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담과 더불어 치료를 염두에 둔 단계별 대응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지역(동네) 돌봄 기능 활용 및 학교 연계 홍보

● 기존 돌봄 기관 활용 및 홍보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듯이 돌봄의 공백이다. 기존 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상 학원, 방과 후 교실, 공공의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능들이 돌봄의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기능이 중단, 축소되고 돌봄의 기능이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에 집중되면서 학교의 돌봄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 학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를 돌보기 위해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프레시안, 2020.1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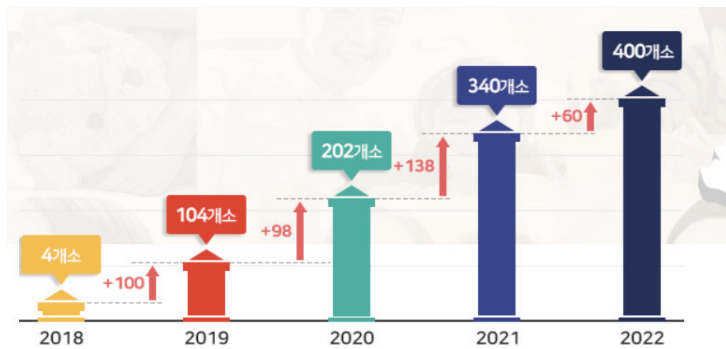
[표 4-3] 서울시 아이 돌봄서비스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초등 돌봄교실
개소	127	439	44	28	607
서비스 대상	만 6세~12세 초등학생	만 18세 미만	만 6세 이하 영유아 및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나 부모	초1~6학년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none>;))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세~12세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 후, 학원 수업 사 이에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돌봄서비스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학교의 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보다 서비스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는 의미가 크다. 누구나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돌봄(이용료 월 5만원 이내)과 일시돌봄(일 2500원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자격(맞벌이 증빙, 소득 증빙 등)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편리하다.

또한 2022년까지 서울시 400여 개소를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향후 돌봄 공백에 대한 센터의 역할이 기대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none](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none;);))

[그림 4-1]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연차별 추진목표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27개소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그 수는 자치구마다 편차가 심하다. 노원구에는 24개, 송파구에는 14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어 서울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에서 초등학교 수가 2번째로 많은 강서구에는 2개, 5번째로 많은 양천구에는 1개의 센터가 있다. 관악구에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단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매우 빠르게 확보되고 있어 돌봄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지역센터 설립 수의 편차에 대한 정책적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7330?tr_code=short

[그림 4-2] 서울시의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는 코로나19 심각단계에 등교가 중단됨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정상 출근하도록 하여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을 위한 긴급돌봄을 실시했다(교육뉴스방송(2020, 08.26)).

그러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도 8월 28일 기준 우리동네키움센터 86개소에서 589명의 아동이 긴급돌봄을 이용하였고 이는 이용률 27.8% 수준에 해당한다(우리문화신문(2020.09.22.)). 인터뷰 대상자 중에서도 우리동네키움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고, 학교 인근에 센터가 설립되어 있었지만 홍보가 부족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센터가 설립된 경우, 잠재적 이용 범위에 있는 학교의 알림 앱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에게 서비스 내용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마을 단위) 돌봄 기능 확대

현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돌봄 기능은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있다. 보다 촘촘한 돌봄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의 역할도 필요한데 특히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노원구는 돌봄 틈새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아이휴센터’를 20개소 운영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대상이며,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 가능하지만,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학교 등 돌봄 기능이 모두 중단되었을 때도 긴급돌봄으로 자체적으로 운영되었다. 다만 위급 상황에서 학교 및 타 기관과의 연계가 어려웠고, 긴급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력의 부족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강대중 외, 2020). 아이휴센터는 전담 돌봄 형태이기보다는 학원과 학원 사이의 공백, 병원 동행 서비스 등과 같은 ‘틈새’가 발생하는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학교가 중단되자 8-8의 종일 긴급돌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학교 및 다른 돌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했으나 일괄적인 회의 중단 등의 문제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강대중 외, 2020).

코로나19 전후에도 보편적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어왔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 역할이 확대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 마을 단위에서의 돌봄 형태가 다양해질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위급 상황을 대비한 긴급돌봄의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사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웃공동체의 돌봄서비스 활성화 필요(소규모 돌봄 가능)

개별 면담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관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웃과 함께 돌봄을 나누는 사례가 있었다. 위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기관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 장소에 대한 부담과 자주 방문한 장소가 아닌(학교 등) 생경한 장소에 아이만 두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에는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간과 시스템을 갖춘 공동육아 지원과는 별개이며, 개별 가정들 간 돌봄 품앗이 공동체를 형성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다. 최소 2가정 이상이 월 1회 이상 활동을 하면 자녀 1인당 월 5000원의 활동비와 부모교육 등을 보조해주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이는 이웃 간 돌봄 품앗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상호 간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 ‘자녀돌봄 품앗이’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자녀를 맡겨야 하는 상황의 가정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맡아줄 수 있는 가정이 교류하는 경우도 돌봄 공백을 해결할 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은 돌봄센터, 집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방과 후 학교 돌봄센터 외에도 친구나 가족, 이웃 등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집에서 아동을 돌봐준다면 ‘Working Connection Child Care’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받아 지급할 수 있다(정익중, 2020b). 우리도 다양한 돌봄 형태에 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사람 간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고, 이웃 간의 도움이 활발해 질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돌봄보다는 긴급 혹은 비일상적인 시기에 일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될 필요는 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코로나19 이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돌봄의 기능을 담당해왔던 방과 후, 학원 등의 기능도 함께 축소되면서 가정과 기관이 담당해야 하는 돌봄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돌봄서비스의 체계는 보다 촘촘하면서 위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과 서비스의 확보도 필요하지만 위기 시 긴급하게 조직되고 작동될 수 있는 유형의 서비스가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구, 지역(마을)단위, 이웃공동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학교 급식 시스템의 활용

위급 상황 시 학교 급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등교 중단 시 돌봄 수요 증가로 인해 점심식사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데, 지역기관 등에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강대중 외, 2020).

학교 급식 시스템은 팬데믹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거리두기 단계가 심화되면 학교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오기 때문에 급식에 대한 부담이 낮았으나, 코로나19 이후 아침부터 돌봄이 실시되어 급식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다. 이때, 학교에 구비된 급식 시설을 운영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일정 시간대로 나누어 도시락 형태로 받아 갈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단계적 등교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선택 외에도 도시락을 지참하여 식사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등교 시 교실 내 혹은 급식실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은 과밀학교(학급)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감염 우려도 높을 수밖에 없다. 단축수업으로 인해 초등학생은 급식 후 하교하므로 도시락 용기를 지참하여 수령해 집에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 4-4] 학교 급식 활용방안 예시

등교 중단 시	단계적 등교 시
지역돌봄센터의 시설이용자와 등교 중단으로 혼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도시락 형태(용기 지참)로 받아갈 수 있도록 검토 필요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지만 도시락에 담아 집에서 섭취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 등교 시 급식실이나 교실 내에서 단체 급식 실시 중이나 과밀학교(학급)의 경우에 감염 우려가 높음
▼	
[기대효과] 학교 급식 시스템 유지를 통해 돌봄서비스를 이용자 및 도시락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급 가능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서비스 기관에서의 급식 부담 완화) 급식 자재, 인력 유지가 가능하고 배달음식을 이용에 따른 일회용기 사용 감소 기대	

2_중장기적 대안

코로나19는 예상과 달리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우리는 주먹구구식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며,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면담 결과를 통해 우리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 오롯이 전가되는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임기응변적이고 단기적인 해법으로는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적 불안이 증폭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위기상황에도 가정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같은 상황이 아닌 경우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멀리 가지 않아도 가족이 생활권 내에서 충분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가정은 일상생활의 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장기적 대안으로 첫째, 학급의 적정 밀도 유지, 둘째, 작은 학교 만들기, 셋째, 충분한 생활권 공원 확보, 넷째, 가정 내 역할 분담을 위한 사회적 구조 및 인식 변화를 제안한다.

1) 학교의 밀도 관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한 학교 당 밀집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밀도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당 전교 학생 수를 최대한 줄여 밀도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먼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밀도가 높은 편이다. 2020년 4월 기준, 서울 시내의 초등학교는 총 607개이며, 학급 수는 18,561개, 학생 수는 409,536명이다(서울시교육청). 통상 과밀학급의 기준인 30명 이상의 학급은 1,111개로 전체 학급수의 6%에 해

당하며 전체 초등학생 중 9%가 과밀학급에 속해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등학교는 20명 이상 학급이 전체의 77.7%이며, 약 83%의 학생이 여기에 속해 있다([표 4-5] 참고). 전국 교실의 통상 면적은 67.5㎡ 이하인데²⁾, 이 교실에서 24명씩 있을 경우 실제 옆 사람과 최대 간격은 50cm이며, 앞 뒤 간격은 2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2m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교실 벽까지 책상을 붙인다고 단순 계산했을 때, 한 반에 최대 16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최대 1.8m까지 거리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다(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킴, 2020.10.22.). 서울시내 초등학교 중 16명 이하의 학급 수는 891개로 전체 학급수의 5%(12,502명)만 해당된다.

[표 4-5] 서울시내 과밀학급 현황 분석

구분	30명 이상 과밀학급	25명 이상 -30명 미만	20명 이상 -25명 미만	20명 미만	합계
학급 수	1,111개 (6%)	3,474개 (20%)	9,244개 (52%)	3,959개 (22%)	17,788개 (100%)
학생 수	36,298명 (9%)	93,613명 (23%)	206,815명 (51%)	69,219명 (17%)	405,945명 (100%)

참고: 607개 학교, 18,561개 학급 중 휴교 중인 학교, 복식학급, 특수학급 등은 분석에서 제외
출처: 서울시교육청_서울교육통계_연도별학교현황_‘20200401기준 학교일람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

일각에서는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므로 학급당 학생 수는 저절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과연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이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될까? 한국교육개발원(2010)의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예측을 보면 2015~2019년은 학급당 30명, 2020~2024년은 학급당 25명, 2025~2030년은 학급당 20명으로 전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전체 학생 수 / 전국 학급 수)는 줄어든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줄어들어도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 대한 집중 현상 관리는 필요하다.

[표 4-6]의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해당 학교 학생수 / 해당 학교 학급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학교 현황을 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등 특정 지역의 특정 공립학교들과 일부 사립학교들에 과밀학급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2) 초등학교 일반 교실의 경우 통상 7.5m × 9m (67.5㎡) 구획을 따르며, 학생 1인당 면적은 1.4㎡ /인이다.(건축기사 시험 자료 참고)

학령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명 ‘좋은 학군’에 대한 밀집 현상은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학교의 수용 가능 정원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인원을 분산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모든 교육구는 각 공립학교의 경계 지역을 정하고, 학생들은 이에 따라 주소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니게 된다. 그런데 이 경계는 각 학교의 수용 정원에 따라 조절 및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집 바로 앞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 몇 블록을 더 걸어가야 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다.

[표 4-6] 서울시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명 이상 과밀학급 학교 현황

소재구	학교명	설립	전체 학생 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강남구	서울대치초등학교	공립	1734	37.7
강남구	서울대도초등학교	공립	2212	35.7
강남구	서울도성초등학교	공립	1840	32.9
강남구	서울대모초등학교	공립	1084	32.8
강남구	서울언북초등학교	공립	1895	31.6
강남구	서울언주초등학교	공립	1628	30.7
강동구	서울명덕초등학교	공립	1778	32.9
강서구	서울내발산초등학교	공립	1542	30.2
광진구	서울광남초등학교	공립	1516	30.3
서초구	서울원명초등학교	공립	1344	31.3
서초구	서울서원초등학교	공립	1281	31.2
송파구	서울버들초등학교	공립	1060	33.1
송파구	서울잠일초등학교	공립	1895	32.7
송파구	서울잠신초등학교	공립	1653	31.8
양천구	서울경인초등학교	공립	1247	34.6
양천구	서울목운초등학교	공립	1704	34.1
⋮				
중구	송의초등학교	사립	576	32.0
노원구	태강삼육초등학교	사립	764	31.8
용산구	신광초등학교	사립	372	31.0
광진구	세종초등학교	사립	363	30.3

출처: 서울시교육청_서울교육통계_연도별학교현황_‘20200401기준 학교일람표’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

2) 작은 학교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교당 학생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 밀집된 학생 수를 줄일 때 적절한 밀도가 확보될 수 있다. 작은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유리하다는 사실은 미디어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³⁾ 그렇다면 작은 학교의 개념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도시 작은 학교(Urban Small School)란 이름 그대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로, 학교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 규모가 교육 효과와 관계가 있으며, 학생 수가 적을수록 교육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세워진 개념이다(이상홍, 2011). 작은 학교는 소규모의 시설과 인원으로 학교를 운영하나 최대한 기존의 사회적, 도시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당 도시의 인적, 물리적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학교가 지역사회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이상홍, 2011). 작은 학교는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표 4-7]은 작은 학교로서 가능한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 작은 학교의 형태

구분	내용
큰 학교 + 작은 학교	큰 학교 속의 작은 학교 형태로, 큰 학교 중 일부만을 떼어 작은 학교를 만들. 단, 큰 학교 안에 그대로 존재하면서 학교 시설과 필요한 물품을 공유하는 형태
작은 학교 × a	기존의 큰 학교와 무관하게 생겨난 작은 학교가 하나의 큰 학교 건물을 빌려 쓰는 형태
시설분리 운영형	메인 시설을 갖춘 모 학교를 중심으로 소형학교를 분리하여 운영 예) 아파트 학교
커뮤니티 시설 연계형	부족한 교육시설과 교육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커뮤니티 시설 자원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
목적형 학교	특정 목적에 최적화하여 교육시설의 효율성을 높인 학교 예) Art school, 빌딩형 장애인 학교
Media 통합 학교	공간의 제약을 피하고 분야와 학년의 구별이 없는 개인 맞춤형 학교

출처: 이상홍(2011), 스몰 스쿨(Urban Small School), p.46-52, 18:4, 한국교육시설학회지

3) 김포신문, 2020.10.05. 보도, '여기는 '작은 학교', 코로나에도 전교생 등교합니다.'
<https://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80>,
 한국교육신문, 2020.09.14. 보도, '코로나19 시대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이 아름답다'
<https://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2241>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작은 학교라는 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도시 작은 학교를 지향해서 발생했다기보다는 학생 수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에 따르면, ‘서울형 작은 학교’ 정책은 소규모학교를 대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소규모학교가 겪고 있는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제1기를, 2020년부터 3년간 제2기 서울형 작은 학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2기로 300명 미만 학교 중 희망 학교 20교의 신청을 받았고, 교육 격차 해소 필요성, 역사적 상징성, 지리적 위치, 학생 수 추이 등의 기준을 고려해 8곳(북한산초, 금천초, 교동초, 용암초, 재동초, 등명초, 대청초, 사근초)을 선정하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작은 학교 학구를 큰 학교 학구까지 확대·지정해 큰 학교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일방향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학교 선택권을 주는 제도로서 ‘서울형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다(서울교육소식, 2019.11.25.).

비록 도시 작은 학교와는 시작의 목적이 달랐을지라도, 서울형 작은 학교는 일반 학교들에 비해 코로나19 대응에 수월한 면이 있다. 면담 대상자 중 서울형 작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작은 학교가 얼마나 유리한 지 알 수 있었다. 작은 학교는 화상 수업, 방과 후 수업, 방학 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학생 밀도가 높은 일반 학교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였다. 또한 선생님 당 학생 수가 적어(16명 이하) 학생의 전반 사항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더불어 교육 공간의 물성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황은희 외(2019)는 학교 공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교육 공간의 확장은 학교만이 교육의 공간으로서 공인되는 체제를 벗어나 교육을 하는 공간이면 어디든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교육의 공간은 학교 안 교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사이버 공간 등 학습자가 학습을 목표로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교육 공간이 되도록 바뀌어야 한다. 그

곳은 자신의 방이 될 수도 있고 핸드폰을 들고 학교를 향하는 버스 안이 될 수도 있고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의 안이 될 수도 있다.”(황은희 외, 2019: 206)

김경애 외(2015)에서는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설명한다.

“학교라는 공간성은 기존의 학교 울타리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일종의 ‘학습 환경’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학생들이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크게 보고 외부의 무한한 자원과 접속할 수 있는 연결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학생별 개인 공간과 공동체 공간을 확보한다. 모든 공간은 다시 공간 간 연결성을 확보한다. 그야말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 무대이면서 학교 안팎의 학습 경험을 연계해 줄 수 있는 트랜스포머-스마트 학습 공간이 된다.”(김경애 외, 2015: 167)

3) 생활권 공원 확보

시민들은 그동안 카페, 도서관, 실내운동시설, 쇼핑센터 등 실내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 실내 공간 이용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야외 공간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문제는 서울시내 거주민들의 생활권 내에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놀이의 형태가 산책, 자전거, 인라인 같은 1인 운동 위주로 변화하였다. 이는 어린이 뿐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여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전거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⁴⁾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시민들의 실외 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서울은 외곽의 주요 산악 지역 중심으로 큰 규모의 공원이 확보되어 있지만, 시내 시가지에는 어렵게 확보한 소규모의 공원들이 분포되어 있다.⁵⁾ 서울의 1인당 공원 면적은 16.2㎡(2014년

4) 서울신문 2020.08.13., “‘내리막길’ 자전거 살린 코로나…삼천리자전거 4년래 최대 매출’ 기사 참고,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KB6IL8V>

5) 서울정책아카이브의 ‘생활인프라’ 중 ‘공원녹지 분포도’ 설명 참고,
<https://www.seoulsolution.kr/ko/living-Infrastructure>

기준)이다. 이는 런던의 33.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싱가포르의 18.0㎡, 베이징의 15.7㎡, 뉴욕의 14.7㎡와 유사한 면적이며, 파리의 10.7㎡와 도쿄의 4.5㎡보다는 큰 편이다. 그러나 이는 산악 지역을 모두 포함한 면적이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을 알아보면 생활권 공원 면적을 살펴봐야 한다.⁶⁾ 생활권 공원은 이용자들이 근린 생활권에서 실제로 접근하기 용이하고 자주 이용하는 녹지를 포함한 공간으로서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기타 공원, 도시자연공원 등이 포함된다. 서울의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은 5.7㎡(2019년 기준)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⁷⁾

서울시 공원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악 공원은 등산이 가능하지만, 자전거, 산책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수요를 수용할 수 없다. 이러한 수요를 수용하려면 충분한 생활권 공원의 면적을 확보해야만 한다.

4) 사회적 구조 및 인식 변화

장기적인 위기상황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앞서 제시한 방법들로 위기상황 시 사회의 기능이 가정에 전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동시에 가정에 지워지는 부담이 가정 내 특정인(주 양육자 또는 주부)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 그리고 최대 일상마모 집단인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먼저, 가정 내 돌봄과 교육 부담이 주 양육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분담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직장을 다니던 엄마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육아를 위해 급여가 적어도 근무시간이 유연한 회사를 선택하거나 프리랜서, 자영업, 또는 전업주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터뷰 결과 실제 9명의 면담 대상자 중 2명은 회사와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대신 연봉을 삭감하였고, 1명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 학교 근처에 자영업(카페)을 운영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이러한 전환 케이스는 증가하였다. 인터뷰 대상 중 2명은 육아를 위해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일하였으나 이마저 코로나19로 인해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아빠의 생활은 큰 변화가 없었고, 엄마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6) 서울정책아카이브의 '생활인프라' 중 '1인당 공원 면적' 설명 참고,
<https://www.seoulsolution.kr/ko/living-Infrastructure>

7)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의 '서울시 공원(1인당 공원면적) 통계' 참고,
<https://data.seoul.go.kr/dataList/360/S/2/datasetView.do>

있었다.

이는 가정 내 역할 분담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정관념 때문이라 할 수도 있지만, 엄마가 육아를 전담하도록 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미 육아휴직, 육아휴가, 재택근무 등의 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아빠의 경우 직장에서도 이를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분위기이다. 따라서 부모 모두가 필요시 육아휴직, 육아휴가, 재택근무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편 전업주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전업주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 일상마모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업주부의 일은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업주부는 온종일 가족 구성원을 위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지만 쉽게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아이의 돌봄, 교육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노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별일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주부들의 심각한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주부는 사회경제를 떠받치는 그림자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무너지면 사회경제도 불안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는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후순위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거의 없다. 코로나19 대책도 대부분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동시에 주부의 노동의 사회적 효용을 인정하도록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05. 결론

강대중 외(2020)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교육 및 학교 기능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대응 방식은 너무나도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이례적인 팬데믹 상황은 누구도 알지 못했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 다만, 이미 장기화되어버린 상황에서 가정 내 부담을 분담하고 완화할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기관이나 서비스가 대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및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온라인 교육 체계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매뉴얼과 돌봄을 위한 지역 조직, 이웃공동체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주체들의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지원 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한다.⁸⁾ 이에 따라 우리가 몸담은 도시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감염병은 사람의 외부활동을 크게 위축시키지만 사람은 외부활동 없이 건강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서울과 같은 도시 환경에서는 학교, 도시의 공공공간의 밀도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에서 학교의 기능 중단에 의해 교육, 돌봄 등의 부담이 가중된 가정 내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은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그에 따른 가정 내 어려움도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시기적으로 매우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점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해소되는 경우도 있었고,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점들도 여전히 남아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는 시기에는 온라인 수업의 방법(기기 사용, 수업 방식 등)에 대한 어려움이 극심했지만 지금은 쌍방향 수업으로 전환되고 있을 만큼 온라인

8) 한국일보. 2020.05.16. "[2020한국포럼] 신종전염병신종 전염병 또 온다... 가정·지역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61536373211>

수업이 진화되고 있다. 반면, 거리두기의 단계 변화에 따른 돌봄의 증가와 가정 내 돌봄 스트레스는 계속 문제로 남아있고, 돌봄 수요 증가는 돌봄 기관의 인력 부족 등 어려움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정 기간에 발생되었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까지 계속 어려움으로 남아있거나 지속되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고, 또 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는 급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어려움에 대해 언론기사, 연구기관 등을 통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유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연구에서는 개별 면담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 단편적인 가정 내 어려움을 진단하기보다는 교육, 돌봄, 사회적 교류, 가정 구성원들의 어려움 등 통합적인 접근을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가정 내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담았으며, 장기적으로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하였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정 내 어려움을 탐색하고 고민한 이 연구가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자료로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대중·김경애·김미운·박승원·유대영·이영·이예슬·전대원·전유택·조기성·채재은·최예린·최진영·황성희·김차명·부은희·이길호 (2020) 「코로나19 한국교육의 잠을 깨우다」, 지식공작소.
- 김경애 외(2015),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1」, 아카데미프레스:서울.
- 여성가족부(2020),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안내'.
- 유명순(2020), '재난심리와 사회위험인식 측면에서 본 코로나19 4개월', 코로나19 팬데믹- 한국의 대응과 과제,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포럼, 2020.5.21 발표.
- 육아정책연구소(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 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 Brief」 통권 제81호.
- 이경옥(2007), 가족해체와 유아교육의 역할.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 이반 일리치 저, 노승영 역(2015), 「그림자 노동」, 사월의 책.
- 이상홍(2011), 스몰 스쿨(Urban Small School), 18: 4, 한국교육시설학회지 2011년 7월.
- 이은환(2020), '코로나19 세대, 정신건강 안녕한가?', No.414,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 정익중(2020a). 코로나19 전후 일상변화와 아동행복. 「제17차 아동복지포럼 자료집」.
- 정익중(2020b),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해외대응과 그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20 여름호」, vol.13, pp. 47~59.
- 김인희(2020). 「탄력적도시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서울연구원.
- 최윤경(2020), 코로나19와 아동돌봄의 쟁점, 「육아정책 Brief」.
- 최윤경·박원순·최윤경·안현미(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및 돌봄공백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2010), 학교규모에 따른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환경.
- 황은희 외(2019),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관련 기사

경북북부탑뉴스, 2020.05.18., '의정부시 거점영어체험센터 원어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수업 진행'
(http://www.gbtopnews.net/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17782)

교육뉴스방송, 2020.08.26., '포스트코로나 시대 초등돌봄 대전환 온라인 현장대화'
(<http://www.enbnews.org/news/articleView.html?idxno=21615>)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6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국민일보, 2020.03.31., '등교 개학 무기한 연기...9일부터 중·고 3학년 '온라인 등교''
(<http://m.kmib.co.kr/view.asp?arcid=0014426218>)

김포신문, 2020.10.05., '여기는 작은 학교, 코로나에도 전교생 등교합니다.'
(<https://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480>)

뉴스스토리 2020.04.01., "'코로나19' 4차 개학 추가 연기"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454>)

뉴시스, 2020.06.29., '서울 학생 '식재료 꾸러미 배송 시작' 내달 31일까지'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629_0001077013&cid=1020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4.04., '정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116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0.09.24.,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내주부터 지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232>)

서울교육소식, 2019.11.25., '[보도자료] 제2기 서울형 작은학교 8곳 선정 및 운영',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65801>)

서울신문, 2020.08.13., "'내리막길' 자전거 살린 코로나...삼천리자전거 4년래 최대 매출'
(<https://www.sedaily.com/NewsVlew/1Z6KB6IL8V>)

세종포스트, 2017.09.24., '복합·공원·학교가 하나로...세종시 신개념 복컴단지 조성'
(<http://www.sj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1>)

아시아경제 2020.04.06., '성동구 체육센터 프로그램 동영상 '홈트레이닝·홈스쿨' 운영'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40606582162681>)

연합뉴스, 2020.12.06., 'e학습터·EBS 온라인클래스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4131300530>)

우리문화신문, 2020.09.22., '코로나 이후 우리동네키움센터 어떻게 운영할까'
(<https://www.koya-culture.com/mobile/article.html?no=126328>)

의료복지뉴스, 2020.05.04.,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http://www.mediwelfar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6>)

조선일보, 2020.08.14., '유현준의 도시이야기, 학생 천 명이 커리큘럼 천 가지로 배우는 학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3/2020081304920.html)

프레시안, 2020.12.09., '코로나 돌봄 공백, 언제까지 공문만 내려보낼 것인가'

(<https://news.v.daum.net/v/20201209150912951>)

한겨레, 2020.05.04., '고3 시작으로 13일부터 등교...초1~2학년 20일'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43556.html>)

한국교육신문, 2020.09.14., '코로나19 시대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이 아름답다'

(<https://www.hangyo.com/mobile/article.html?no=92241>)

한국일보, 2020.05.16., '[2020한국포럼] "신종 전염병 또 온다... 가정·지역 중심 의료체계 전환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261536373211>)

bbc 뉴스 코리아, 2020.03.17., '코로나19: 유치원, 초·중·고교 개학 4월로 연기'

(<https://www.bbc.com/korean/51923209>)

MBC라디오, 2020.10.22., 서울 영도초등학교 이나리 교사 인터뷰 참고,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https://news.v.daum.net/v/20201022194827154?x_trkm=t)

● 웹사이트

구글뉴스 코로나바이러스 (<https://news.google.com/covid19/map>)

다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s://news.daum.net/covid19>)

보건복지부 (<https://welfaresystem.kr/>)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http://ncov.mohw.go.kr/>)

서울시교육청 연도별 학교현황 (<http://mopen.sen.go.kr/board/board4.jsp?mid1=28&mid2=7>)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5343>)

서울정책아카이브 생활인프라 (<https://www.seoulsolution.kr/ko/living-Infrastructure>)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공원 통계

(<https://data.seoul.go.kr/dataList/360/S/2/datasetView.do>)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none;>)

아동돌봄서비스 (<https://old.idolbom.go.kr/>)

작은연구 좋은서울 20-02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가정 내 돌봄과
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초등생을 둔 가정을 중심으로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12월 23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